



간행물 등록번호 54-B553052-0035-10

올림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올림

광주문화재단 결과보고서 2018 ③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올림

광주문화재단

##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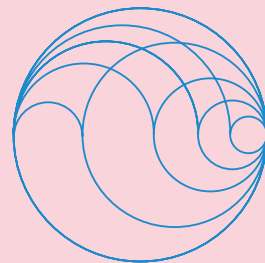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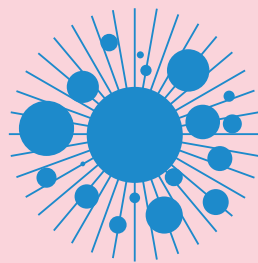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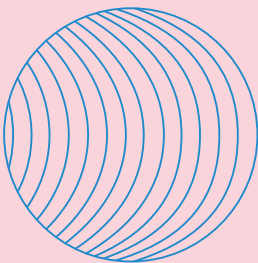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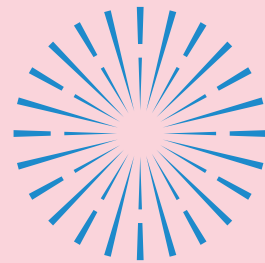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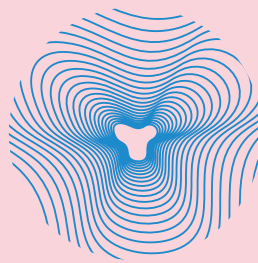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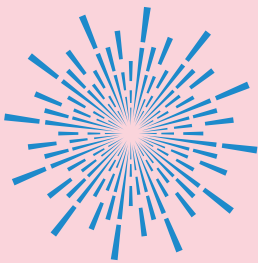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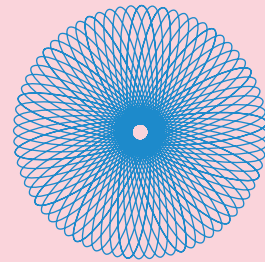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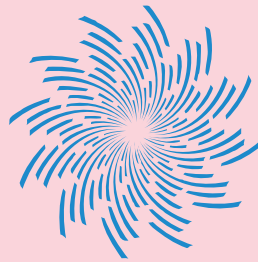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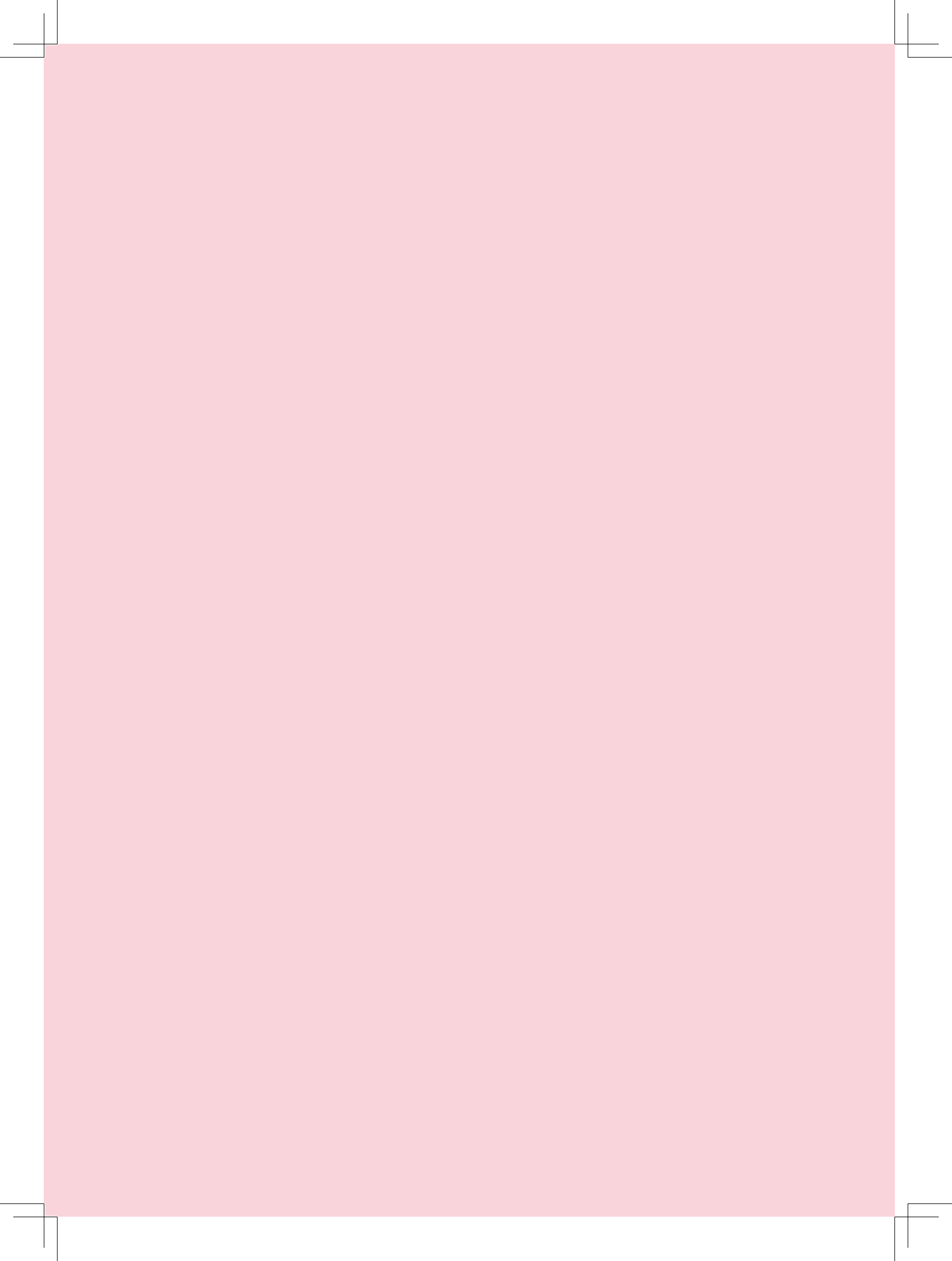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100

100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 올림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E

Echo

Everybody

Everywhere

Enjoyable

---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작은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도록 곳곳에 소식을 전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울린다는 의미의 울림(Echo)은 6명의 통신원 시선으로 본 누구나(everybody), 어디에서나(everywhere), 즐길 수 있는(enjoyable)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열다		발간사	005
		사업소개 및 통신원 소개	006
사람 Human	Everybody · 누구나	전문가칼럼	012
		인터뷰	042
현장 Scene	Everywhere · 어디에서나	취재 현장	046
		워크숍 현장	138
연결 Network	Enjoyable · 즐길 수 있는	통신원 사용설명서	142
		인싸(Insider)들의 인사이트(Insight)	144
		굿바이 모담지기	148
		통신원 소감	150
		2018 뉴스레터 주제목록	152
닫다		맺음말	155

# 열다

004

009

발간사  
사업소개 및 통신원 소개

##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올 한해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운영사업과 협력 사업을 통해  
광주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창의예술학교, 경자씨와 재봉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모담지기” 통신원제운영 등  
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과 네트워크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사업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5개년수립”을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한  
광주형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주말 아동·청소년과 가족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과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동네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기획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그리고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이 문화로 풍요롭고 예술로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공간을 바꾸고  
예술적 환경을 바꾸고 시민 중심의 연대와 소통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미래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한 단계 성장하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알리고, 사람과 공간, 지역을  
연결합니다. 올해로 9기째 운영되는 통신원 '모담지기'는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의 '모담'과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의 '지기'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뜻을 도모하여 매달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매년 <올림>을 발행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2018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사업기간	2018년 1~12월
통신원	문화예술교육 현장 글쓰기와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일반통신원 6명
사업주최·주관	광주광역시 /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추진일정

분류	기간	세부내용
통신원 모집 및 선발	2월	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후 선발(총 6~7명)
통신원 오리엔테이션	3월	오리엔테이션 및 1차 기획회의
통신원 기획회의	3월~12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월간 뉴스레터 발행	3~12월	매달 10일(정기구독자 3,000여 명 발송)
네트워크·워크숍	6월~12월	상·하반기 각 1회
<울림> 발행	11월~12월	통신원제 뉴스레터 연간 모음집 발간
연말 평가회의	12월	사례 나눔 및 네트워크 파티

## 추진방향

1.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프로그램·공간·정책과 이슈 등을 허브사이트에 집적함으로써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합니다.
2. 전문가 칼럼 및 기획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을 알리고, 그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합니다.
3. 허브사이트 및 뉴스레터가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중심적인 홍보창구가 될 수 있도록 단체 및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정보를 집적하여 홍보합니다.
4. 통신원이 향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합니다.
5. 편집회의를 통해 뉴스레터 전체 콘셉트와 기사를 통신원 스스로 기획하여 기획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6. ‘울림’ 뉴스레터, 통신원 ‘모담지기’란 네이밍을 붙여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체 브랜드로서 역할을 합니다.

# 제9기 통신원 ‘모담지기’를 소개합니다



## 활동기간

2018년 3월 ~ 12월

## 활동내용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취재

정기기획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뉴스레터 연간모음집 ‘올림’ 발간

## 활동혜택

(재)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명의 위촉장 수여

원고 게재 및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사례비 지급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행사 우선 참여

### 박상준

매일 저녁 일과를 끝내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모토를 가슴속에 품고, 내일의 과업을 살펴보면서. 때론 싱거운 글도 써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검색해본다. 머리는 내성적이지만 몸은 외향성을 지향하며, 머리는 두렵지만 몸은 도전한다. 행동하는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땐 가사가 없는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다. 선율을 따라 상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학생이다.

### 곽주영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경영정보시스템을 배우고 있다. 금융기관에 적을 두었다가 또 지금은 박물관에서 일을 한다. 가끔씩 인생을 엇박자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문 사이에서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세워가는 것, 어긋난 박자 속에서 제 고유의 선율을 만들어 가는 것, 속도는 다르지만 정 방향으로 향해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

### 선단비

늘 그렇듯 새로운 시작은 낮샘과 설렘이 공존한다. 동구에서 재봉틀과 함께 청춘을 엮고 있던 나는 기자단이라는 새 옷을 걸치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결심한다. 예술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는 문외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툰고 어수룩한 솜씨지만 광주 시민들과 문화예술의 연결 고리가 되기 위해 모담지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 임우정

미술교육을 전공하였고 여전히 미술을 사랑하며, 생활 속에서 계속 예술과 함께 하며 살고 싶다. 나이 든 고양이와 함께 나이 들고 있고, 돌고래가 살기 좋은 환경을 꿈꾼다.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통해 궁핍함을 잊고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 최류빈

내가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된다면 좋을 텐데, 만약 그런다면 나는 하얗게 밤을 새우면서라도 무슨 말이든 해줄 거다. 단 한 사람과 공진하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활자들을 내뱉는 지독한 버릇, 나는 단어로 언어적 문신을 그려댄다. 그렇지, 언어라는 건 정말 재밌다. 내 앞에 잔뜩 차려진 재료들 같아. 나는 여기서 한철 모담지기라는 이름을 살 예정이고, 분명 또 우린 활자로 언제 어디선가 만날 거다. 이렇게 짧은 소개가 될는지- 모든 건 이름 모를 활자 밖 당신에게 맡긴다.

### 마민주

글을 쓰는 것을 사랑한다. 고통은 불완전한 형태로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글을 쓰는 것은 그런 형태 없는 것들에 윤곽선을 부여하는 일이다. 작가가 그 윤곽선을 들고 '내 말 좀 들어주요'하며 심각히 나서주는 게 좋고, '그럼 그럴까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다.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면 이 역시 하나의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가끔 깊고 오래된 상처를 소독해줄 때가 있다. 그렇기에 예술은 삶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 삶 자체가 예술이길 바란다.

# 사람 HUMAN

010

---

# Everybody ○ 누구나

---

043

전문가 칼럼  
인터뷰

퍼포먼스 반지하 스튜디오 · 새활용극장



4) 동네가 일부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선 후, 그곳을 벗어난 인근 지역에 청소년들이 울수 있는 공간을 차리고, 매일매일 밤과 후 '지역문화교육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 부모 가정 내지는 조손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5) 아이들을 열심히 보듬어도 다시 도루묵인 현실 때문에 그 아랫동네에 집과 마을 공간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과 마을을 좀 더 환하게 단장하는 활동을 한동안 하며 마을의 공동체적 환경이 되어주는 노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며, 마을의 이야기를 벽화와 미디어로 기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6) 마을에서 노동을 하고, 이웃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마을을 공동체적으로 유지시키는 힘은 ‘노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노동을 통해 관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몸을 움직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 생활과 몸에 자연스레 남게 되었습니다.

7) 우리 안에 생겨난 생활노동 문화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만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확장되자 문화를 자본적 가치로 보상받으려는 사람들과의 사고의 간극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활동의 의미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정주를 접었습니다.

8) 그즈음 참여자였던 엄마들과 조합으로 단체의 성격을 바꾸고, 오래도록 비어있는 작은 한옥집을 얻어 건너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돌고 돌다 보니 처음에 왔던 송림동의 옆 동네입니다. 집은 송림동으로 이사하였는데 그쯤엔 첫아이가 태어나 오 년간 두 아이를 낳고 길러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살이를 하며, 송림동을 다시 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화로 그렸습니다.

9) 그리고 큰아이가 여섯 살 되어 송림동의 경매로 나온 허름한 집을 얻어 그곳을 손수 고쳐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집’을 기록하던 이곳에 십오 년 만에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지요.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하고 생태활동을 하던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며 한옥집을 생활학교로 열었습니다.

10) 뉴스테이 재개발로 다시 단체의 공간을 잃고 생활학교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집이 이곳에 남아있어서 다시 우리는 동네의 재개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활동하던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의 학교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곳에 학부모로, 주민으로, 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걸어서 30분이면 다닐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지역 내에서 열여덟 해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자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배려로 공간을 얻어 하다가, 그다음엔 세를 얻어 살다가 결국은 집을 얻어 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였고,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을 살아오며 그저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활동이 단체의 지향을 담은 주제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동네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이를 해결해가기 위한 교육과 활동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내용들을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 모두 쏟아부으려는 시기도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그 안에서 더 밀착해서 노동하며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기록하거나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는 이 과정은 더 일상이 되어 펼쳐졌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마을을 우주로 만났던 시기도 있었지요. 잡초 하나, 돌맹이 하나를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마을을 누비며 활동으로 정해진 관계가 아닌 그저 삶으로만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도 생겨나고, 육아와 생활노동을 교육의 중심 영역으로 다시 사고해가기도 하고, 교육을 나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중첩된 정체성으로(아는 아이의 엄마이면서, 동네 아줌마이기도 하고, 아는 선생님이기도 한) 만나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아이 아빠는 요즘 동네의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 마을의 아저씨, 할아버지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아이의 학교에서 요청하는 마을교육 자문과 아이들 교실 앞 복도에 나무로 책 읽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문화예술교육에서 회자되기 전부터 마을활동과 문화교육을 해왔던 입장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중심이 되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지역에 선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저 나에게 처음의 출발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 변화가 우리가 문제라

느끼는 것들을 조금씩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그만큼의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지역의 환경과 어른들의 삶 때문에 지역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작업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살려가는 미디어 활동과 성인교육과 엄마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와 함께 20대였던 나의 나이도 30대, 40대가 넘어가며 만나가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생애과정을 겪어가고, 엄마들과 만나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생태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생활노동의 의미를 되살리는 생활작업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때 그때의 바람으로 관계 맺어왔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느덧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어 다시 만나 가고, 십 년여 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할머니들은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 먼저 나누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생활인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로 왔던 엄마들은 십 년이 지나 이제는 참여자가 아닌 생활교육 운동의 중심에서, 혹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열었던 생활학교는 이제 그다음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산실이 되어 다양한 연령이 함께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노동으로 다시 일상에서, 현장에서 교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 년간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잠시 엿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종이상으로만 말이죠.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늘 경계를 수반하는데 비해, 광주에 갔을 때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 있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서 참으로 생경했습니다.

너무나 잠깐 보았던 광주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기획서라 그저 몇 가지의 궁금증을 갖고 보았던 것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 서있는가’입니다. 이는 ‘무엇을 위해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과거에 있는가, 현재에 있는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연유로 그곳에 서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서있는 그곳의 맥락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교육과 활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가 ‘교육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 단순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몇 해 정도 만날 관계로 보고 있는지, 등 대상과 나와 삶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교육을 통해 만나러 와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만나고 헤어지며 교육공동체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렇듯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관계는 유기적입니다. 그의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나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공통된 삶의 영역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삶의 방식 혹은 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을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교육의 대상을 생활과 생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보다 자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사실 생계가 어려운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병행해가며 하는 다른 활동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활동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주제로 한 활동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성 자체를 드러내어 이루고자 하는 기대는 무엇인지, 사업 취지에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교육 및 교육 외 활동에 어떻게 반영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 기획서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길을 가야 다음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하나의 길을 왔다면 그 길을 오는 동안 보았던 것, 만났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여 다음의 길을 갈 때 좀 더 풍요로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경화

문화집단 영월지구 기획자

## 무명씨의 삶이 예술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고찰

오전 6:30!

비정규직 독거 중년 무명씨를 깨우는 유리스 믹스의  
‘sweet dreams’가 예약시간에 맞춰 재생된다. 무명씨는 몇  
번 꿈지락거리다 점점 커지는 노랫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며  
몸을 움직인다. 무명씨의 발걸음은 굉장히 빠르게 리듬을  
타면서 출근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선다. 미어터지는  
지하철에서 구겨지는 몸을 간신히 버티고 겨우 일터로  
도착했지만, 진짜 전쟁의 시작! 간당간당 위태로운  
동아줄을 부여잡고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페르소나를  
꺼내든다. 거울 속 모습이 이젠 낯설지도 않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또 다른 얼굴. 어색하지만 웃는 연습을  
해본다. 최대한 싹싹하게, 빠릿하게!

페르소나(persona)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원래 페르소나는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다. 이후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이 만든 이론에 쓰이게 되는데 그는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가면)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주장한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 관계를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페르소나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심리구조와 사회적 요구 간의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위키백과



무명씨의 이런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의 상승률에 따라, 인원 감축 명단에 올랐다. 점심시간 때, 따로 불러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을 얘기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처리할 테니, 재충전을 가지라고 한다. 복화술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들을 애써 억누르고 욕상으로 올라간다.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열어 유리스 믹스를 다시 듣는다. 달콤한 꿈이었다. 역시. 무명씨는 피식 웃으며 뮤직비디오의 동작들을 따라 한다. 기분이 좀 풀린다. 내친김에 마릴린 맨슨 버전을 달리며 전투욕을 불태운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일 없는 한, 내일도 이 하늘을 올려다보겠지?

무명씨는 마음의 변화를 느낀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다. 바람이 무명씨를 훑고 지나간다. 무명씨의 눈가가 붉어진다. 무명씨는 마른 세수를 연거푸 하다가 멈춘다. 끄으으 비집고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가 낯설다. 이런 나는 누구일까?

무명씨의 팍팍한 삶에서 예술과 만나는 접점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무대이고 인생은 연극이라고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무명씨 또한 배우가 되어 연극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끄집어낸다. 게다가 음악을 통해 삶을 움직이고 있다.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감정을 이끌어내고 반응한다. 또한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을 맞게 됐다. 이미 무명씨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무명씨들 또한 저마다의 삶에서 예술과 만나고 있다. 이것이 어찌 예술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히려 반문해본다. 과연 예술은 무엇일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선도 흐려졌다. 예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예술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을 했던 시절과도 안녕을 고하고, 보다 더 경쾌하고 힘 있게

안녕이라며 다시 인사를 건넨다. 예술가들만 예술을 할 수 있고, 특정 계층만 예술을 즐기는 시절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돌려주면서 모두가 예술가적 감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다양하게 이끌어내려고 한다. 적극적인 무명씨들이 많아졌다.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자극이나 에너지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처럼 다가온 제도가 있다. 벌써 십 년도 훌쩍 넘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이다. 최근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재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내세웠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다각화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로 세분화된다. 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 소외계층과 사회통합을 위한 예술치유까지! 보다 세밀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 땅의 모든 무명씨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일까.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결정타를 던지는 사회적·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삶과 회복이다. 만약에 갑질하는 오너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평등한 삶과 배려와 이해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예술적 감수성으로 풀어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굼아 터진 우리 사회의 곳곳이 예술과 만난다면? 비논리인 정치인이 예술을 한다면?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Tony Kushner 미국 시나리오 작가, 비평가 -

예술과 삶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에 회의적인 시선보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무명씨는 이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근원의 질문을 던지고 나에 대한 탐색전에 들어간다.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흥놀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나에 관한 물음이었다. 무명씨들은 삶은 이미 예술과 만나고 있다. 하지만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경직된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예술을 하고 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삶을 버티는 요소가 된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도, 김치를 잘 담그는 것도, 만들기를 잘하는



것도, 노래를 잘 하는 것도 모두 다 예술이다. 모든 삶이 다 해피엔딩은 아니다. 흥놀이는 한(恨)을 흥(興)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무명씨들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다. 모두가 드라마를 갖고 있다. 모두가 특별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지점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타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 헤르만 헤세, 『데미안』 中 -

자신과 만나는 것.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본연의 나를 찾는 것. 그렇다고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페르소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이 쌓아올린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응시를 통해 다시 되돌아보며 연어처럼 거슬러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엷히고실킬 실타래를 풀어가는 동안, 무명씨의 드라마는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앞날도 꿈꾸게 된다. 인식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명씨들과 예술의 매개자인 예술가와 활동가의 교감이다. 교감에 실패하면, 무명씨들의 페르소나는 벗겨지지 않으며 이름도 찾지 못한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어떤 기술이나 기교의 전달이 아닌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나를 알게 된다는 것, 나를 찾는다는 것은 이전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나의 변화를 통해 삶의 예술성을 회복하며 가치와 의미에 더욱 중시하게 된다. 내 주변을 돌아보며 타인들을 바라본다. 실제로 흥놀이 프로젝트에서 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느낀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술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다. 무기력하게 삶에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나를 만나게 되는 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무명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의기소침 비참하게 고개 숙이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뺏속까지 내려가 되찾은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삶을 능동적으로, 보다 풍부한 감성으로 일상의 예술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흥놀이를 하러 갔다가, 오후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독거 중년인 무명씨는 관심사인 독거 청년과 독거노인의 세대교류를 위해 <독거의 삶, 예술 하는 삶으로 함께 하라>란 문화예술을 기획하려고 궁리중이란다.



#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획본부장

##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서울 마포 문화 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2년부터 매년 5월 넷째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국제심포지엄, 전문가 포럼,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념행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과 주요 현황과 성과, 이슈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연간 주요행사로 자리 잡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취지와 주요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어젠다, 그리고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0년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07개국이 참여한 세계대회를 통해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 목표>가 도출되었다. 이후 2011년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서울 어젠다’가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됨은 물론 매년 5월 넷째 주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제사회 내 ‘서울 어젠다’ 이행 촉구 및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결의를 이끌어내고자 유네스코 회원국 및 주요 국가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전략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선포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은 2012년부터 매년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및 북미,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도 매년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하며 학술 세미나, 포럼, 축제, 전시 등을 진행하며, 유럽의 연구자들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서울 어젠다’의 국가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세미나와 연구물들을 발간하고 있다.

### **2012~2018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의 흐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간 행사의 핵심 테마인 ‘문화 이해(Cultural Literacy)’를 통한 삶의 이해(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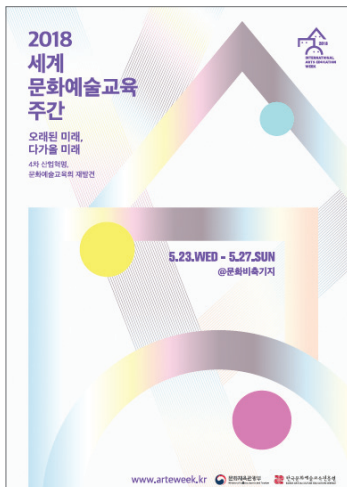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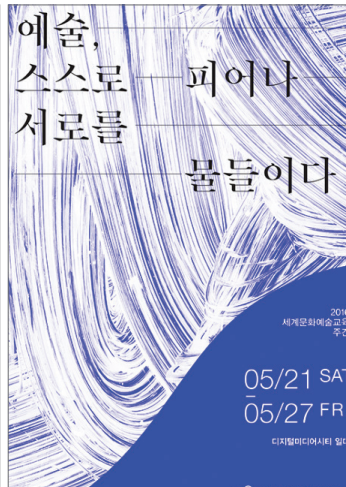
Literacy)’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대중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천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아카펠라 합창, ‘나의 꿈’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작품 천 개의 대형 벽화 등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경상권 광역센터와 협력 운영, 지역 관계자들의 호응과 관심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 **2018년, 4차 산업혁명시대**

####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시도**

올해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및 시민 참여형 워크숍, 예술 해커톤,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동안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이 문화예술교육과 만나 어떤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구분	주제	기간
2012	삶, 예술을 담고 삶을 담다	5.20.~26.
2013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5.19.~25.
2014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5.19.~24.
2015	마음, 꽃길을 열다	5.26.~30.
2016	예술, 스스로 피어나 서로를 물들이다	5.21.~27.
2017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5.24.~27.
2018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	5.23.~5.27.





행사의 시작을 연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라는 주제로 창의성 및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가졌다. 2부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주요한 가치와 함께 기술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래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경영지원센터 간 협력으로 진행된 ‘예술 해커톤: 차세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서로 다른 영역의 관계자들이 협업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차세대 문화예술교육 모델 및 예술교육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무박 2일 동안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도출하였는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림 감상 시스템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람 아이디어 등이 흥미로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예술로 피크닉’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날씨, 재활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주제부터 과거의 문화유산, 미래의 패션, 지구 반대편의 생활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주제까지 풍성하게 선보여 시민들의 오감(五感)을

사로잡았다. 특히 호주의 미디어아트 그룹 ‘플러그인 휴먼(PluginHUMAN)’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웨이브 아트워크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유관학회 세미나를 통해 유관 학계의 협력 및 교류를 바탕으로 학문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보다 심도 깊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이후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과 연구, 실천사례 등은 급증했고,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보다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그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지속적으로 기념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주간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다뤘다면, 이제는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관계자 간, 지역 간, 사업 간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되도록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진흥원 기획, 광역센터 실행 구조로 지역센터와 협력했던 구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나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주간행사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이후 10년을 기념하는 2020년의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 이미지

광주트라우마센터 음악치료

## 문화예술을 통한 트라우마치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까지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의 생산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트라우마(trauma)는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을 말한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음악치료를 하면서 집단 성폭행, 따돌림, 폭행 등의 피해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가 다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2012년 광주에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음악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센터장과 치료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원예치료, 미술치료, 몸동작치료 등을 거친 분들과 시작하기로 하였다. 센터 건물의 특성상 소리를 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근처 무진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80년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오월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내담자 선생님들을 만나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것, 크게 웃는 것조차도 죄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온 삶 속에서 속 시원하게 소리를 내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먼저 간 사람을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주었다고 한다.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풀어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신다. 진심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어느새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졌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배우면서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하는 한 때문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면서 가슴을 치셨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진실을 위해 싸워온 38년의 세월이 무상하지만 혈육의 정보다 더 끈끈한 가족애를 가진 분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계신다. 1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받고 행복해하시던 때에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함께 침몰하여 지켜보는 아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약을 한주먹씩 털어 넣으시면서도 진도로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신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5.18전야제에 함께하여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노래할 때 그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나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다.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던 정○○선생님은 5.18전야제에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하셨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노래도 하고 이겨내고자 하신다. UN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세계인권선언의 날, 촛불집회,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음악으로 희망을 노래한다. 올해에는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오월 위로 음악제’에서 무등산의 정기를 느끼며 시민과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한다. 시청에는 데모만 하러 다니시는 줄 알았던 분들이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로 800여 공무원들을 감동시켰다. 지난 25일 UN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김근태 치유센터 ‘숨’이 주최하는 기념행사에 오월소나무합창단이 참여하였다. 참으로 다양한 트라우마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공연팀으로 나선 오월소나무합창단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2013년 처음 공연할 때 의자를 2개 사용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의자를 8개 사용하게 되었다. 모든 분들이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의지를 가지고 사망감을 가지고 광주정신을 노래로 알리고자 한다.

감탄을 줄 수 있는 음악보다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귀한 분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손뼉 쳐주었다. ‘광야에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손을 맞잡고 부를 때엔 관객들이 모두 기립하여 함께 노래해주었다. 군부독재에 맞서고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나면서 몸은 병들고 지쳤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텨 오신 분들은 노래로 하나 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한다. 김근태 치유센터에서 함께 치유받고 있는 ‘길음 판소리’팀의 공연 또한 감동이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어 부르는 창작 판소리를 통해 소통하고 치유받고 있었다. 고통의 세월을 이제는 문화예술로 풀어내고 더 힘든 곳을 다니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 오월유공자故김영철선생님의 따님인 김연우님은 한국무용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아리랑과 함께 춤을 추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인 문화예술을 통해 승화되고 있다. 자존감의 추락으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면서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행복해지고 있다. 김○○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연극을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잘 살아왔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야 내 남편의 한을 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용이하게 접근이 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자해를 일삼는 정서, 품행장에 청소년이 그림으로 악기연주로 연극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동기유발이 되어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의식을 고취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은 세상에서 고립되어 자기 안에 갇혀 있고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 부적응과 언어능력 저하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도 문화예술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노래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많은 이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스스로 통찰하고 자신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예술과 함께 승화되어 깊은 아픔에서 깨어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너, 나, 우리 함께하는 삶이 아픈 이들에게는 가장 큰 치료제가 될 것이다.

#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행 <모두를 위한 북큐레이션>

도서관에는 ‘책’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책장,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들...

저마다의 이유로 사람들은 도서관을 찾지만, 도서관은  
어떤 목적에 의해 찾는 곳이지, 정작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도서관을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없을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전시회나 미술관에서  
즐기는 예술적 감수성을 이곳에서 느끼고 즐길 수



책문화예술공간봄 문화예술기획팀장

## 김소정

Everybody · 누구나 — 전문가 클럽





없을까? 책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근거리며 선택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순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과 무모한(?) 도전의식이 2018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행-모두를 위한 북큐레이션>이라는 대장정의 길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직업인 북큐레이터, 그리고 책을 공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 책을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북큐레이션은 누구에게나 처음 접하는 낯선 용어들이고 개념들이었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대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었지만, 책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독 심한 우리나라에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출판물이 젊은 독자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대형서점에 밀려 점점 자취가 사라졌던 작은 동네 서점을 중심으로 독립출판서점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작은 서점들은 서점을 운영하는 젊은 주인장들의 개성을 담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자신의 취향과 시대를 공감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담은 책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고양이에 관한 책만 파는 서점, 음악과 시에 관련된 책만 파는 서점, 여행을 테마로 만든 서점 등 한 공간을

하나의 주제로만 운영하는 서점이 있는 반면, 공간을 여러 주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주제로 책을 진열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계절의 변화 등을 담은 책으로 변화를 주며 공간을 채운다. 이렇게 작은 동네서점에서 시작한 바람은 책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변화시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우리는 책이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 지역 작은 책방들을 탐방했는데, 그때 만난 양림동의 '메이드 인 아날로그', 수완동의 '동네책방 숨'은 주인장들의 개성 있는 색깔이 고스란히 담긴 따뜻하고 예쁜 공간들이었다. 결국 그 공간에 놓여진 책들은 그곳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닮아있었고, 그것은 바로 삶의 모습이었다. 공간들을 탐방하고 돌아온 우리들은 북큐레이션의 첫 번째 과제로 나의 취향, 나의 삶의 색깔을 찾아보았다. 내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들의 공통점들을 들여다보니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늘 엄마 아빠를 품고 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나만의 공간을 꿈꾸기도 하며, 늘 떠나고 싶은 그 어딘가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이 북큐레이터 과정은 이미 반은 완성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감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아무리 정교한 작품이라도 결코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 장 프랑수아 밀레 -

내가 좋아하는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고 설레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책과의 첫 만남인 '책표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나의 책장에 색을 입히는 예술과의 만남, 나만의 키워드를  
발견하고 새롭게 나만의 책장을 편집하는 시간들은, 늘  
그 자리에 꽃혀있던 한 권의 책을 먼저 탈탈 털어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초대하게 했다.

#### 색과 공간, 식물과 정원, 종지와 연필, 한국화에서 피카소

다양한 키워드로 책을 큐레이션 해 나가며 결국  
북큐레이션은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책들의 새로운 편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주 각각의 테마로 북큐레이션을 하면서 도서관은  
서서히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곳으로  
변신하고 있었고, 더불어 각자의 책장도 다양한 색으로  
칠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싱그러운 리스를 책장에  
매달아 보기도 하고, 그 책 옆에 다시 어떤 책을 놓을까  
고민해보며, 손으로 쓴 작은 글귀를 책 옆에 살며시  
놔두었다. 그렇게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행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영화와 뮤지컬, 건축과 환경, 고호와 문학,  
그리고 서평 쓰기.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다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두근거리는 여행은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책과 함께 우리가 찾던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게 될 것이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책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진화할 것이다.

어떤 이에게 책을 파는 것은 12온스의 종지와 잉크, 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파는 것이다.

- 크리스토퍼 몰리 -

# 김혜인

문화예술교육  
마흔네살 아나를

##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한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 시리즈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한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모토로 시작된 ‘생애전환기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가 아닌 ‘생애 전환’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생애주기에 방점이 찍히면 대상을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각 세대별 특징이 존재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애전환’에 방점을 찍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전환의 시기에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공급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생애전환’ 맞춤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결국 그 전환의 시기를 함께 넘어가는 ‘모두의 프로그램’ 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자는 베이비붐 세대라 하고 후자는 50+세대라고도



합니다. 좀더 젊게 말하면 후기 청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이런 말들에는  
그 세대를 반영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의  
음악을 듣고 자랐던 X 세대가 흔히 말하는 중년이  
되었듯이 전쟁이후 국가 재건기를 유년기로 삼고 자란  
세대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은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 이념으로  
오로지 근면,자조,성실 만이 삶의 미덕인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 어느 정도  
삶의 여유도 찾았고 자식들도 잘 자라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래의 삶에 여유도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을 지탱해 온 힘들(직장, 일, 가족,  
자식)이 더 이상 나를 버텨내는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직장은 떠났고 새롭게 시작할 일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평생 몸에 익혔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도 내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함께 살아온  
자녀들도 성장하여 떠나갑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의학은 발달하여 평균 기대 수명이  
80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은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맨붕은 시작됩니다. 인생 2막이 새롭게 시작되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고대 연극에서 쓰던 가면을 Persona 라고 합니다. 이 persona 라는 단어에서 인격이라는 Person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이라는 연극무대에서 자신만의 캐릭터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 다른 말로 역할이지요.. 역할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들에서 아빠로 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그때 그때 바뀌는 역할들만 충실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역할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 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역할이 '나' 인줄... 엄마 혹은 아내라는 역할 너머엔 여자라는 본연의 진짜 '나' 가 있습니다. 그 진짜 '나'를 못 만나면 평생 그 역할에만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이 오는데 그 시기가 바로 경자씨와 병태씨의 나이에 오는 혼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교육이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역할이 만든 '나' 가 아닌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내안에 숨겨진 '나'를 불러내야 합니다. 노래하고 싶은 '나' 춤추고 싶은 '나' 글쓰고 싶은 '나' '나' 는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문화예술교육이 하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의 예술 장르에 국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 이었다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함께 앉아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박수를 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삶을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문제 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 싶은 것, 봐야 할 것도 못 본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만 풀어도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좌,우도 살펴보게 합니다. 신비로 가득찬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맞는 모든 베이비붐 세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역할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한 단단한 인생2막을 위하여 치얼스!



# 정민통

북구 문화이진관장

##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주제로, 매일 이루어지는 광주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역성, 일상성, 접근성의 의미

###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지역성의 의미

#### “주름진 마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성에 관한 화두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제시된 문제다. 올해 발표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화’다. 정책적으로 지역분권화의 흐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에서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있어 더욱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성이 강조될 것이다.

‘지역화, 지역성’의 의미는 정책에서 말하는 사업의 추진 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성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토대로 각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역화, 지역성의 의미는 지리학에서 말하는 일상 공간의 특성, 즉 직선보다는 곡선의 공간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한다. 특히 ‘주름진 공간’이라는 표현이 문화예술교육에서 말하는 ‘지역성’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공간은 주름지고 접혀있는 공간이다.

지리학은 주름지고 접혀있는 공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주름지고 접힌 공간의 의미를 찾아내고 복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 『일상의 지리학』, p63, 박승규 저 -

특히 주름진 공간의 의미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관련성이 깊다. 주름지고 접힌 모습의 지역은 켜켜이 쌓여오며 닳아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신작로로 훤히 뚫려있는 곳보다는 굴곡진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 하지만 이제 곡선의 장소가 직선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민의 삶의 정체성은 사라져 가고 있다. 주름지고 접혀 있는 지역이 환경적으로 인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기획되어야 한다. 주름지고 접혀 있는 지역에서는 배어 있는 사람 냄새와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주름진 지역을 조명하고 이를 인문 예술로 표현하는 방식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된다.

## 일상성

‘지역성’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성, 장소성, 접근성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상성’은 일상(생활)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소소한 일상의 소재로 부터 교육주제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일상의 소재는 지역민의 고유한 삶의 특질을 반영한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하거나 농어촌의 생태·역사·인문적 특성이 묻어나는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수단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일상성은 항상, 거기에서 항상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항상성’을 의미한다. 항상성이 높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회성과 대비되는 의미로 일상성은 문화예술교육이 평생, 부단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 장소성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장소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물리적 교육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은 항상 장소성을 짊어 드리고 있다.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해야 한다.

‘장소성’은 ‘지역성’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 되는 공간은 물리적인 교육공간을 넘어 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경험이 묻어 있는 장소로서 의미가 더욱더 깊다. 따라서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하는 장소 또한 개인들의 추억과 경험이 배어 있어야 하고 교육의 내용 또한 개개인이 생각하는 장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장소성은 ‘지역성’을 보다 말랑말랑하게 해주며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 장소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준다.

진도 <개들리 기억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잊혀진 마을길을 개개인들이 기억에 의지하여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개개인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고 다시 마을길을 재생시켜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 접근성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은 수요자 중심의 관점을 말한다. 흔히 ‘수월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곤 하는데 접근성은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수월성은 예술교육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상대적 기회의 균등보다는 고급 수준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용어다. 즉 접근성은 예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편으로 교육의 수준이 낮더라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월성은 이에 반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흔히 인식하고 있다.



# 축제의 원형성과 현대축제의 과제

<원형적 축제의 정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온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축제의 역사가 인류가 사회를 영위해 온 역사와 같다고 볼 때, ‘원형적 축제’란 언제 축제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대나 전통사회의 축제를 의미하며 해외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오랜 기원을 갖는 축제들로 전통사회에서 축제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축제들을 지칭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일제 식민기간으로 인해 오랜 축제의 소멸과 단절기간을 거치면서 1945년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축제가 손꼽을 정도이며 그나마도 축제들이 갖고 있는 원형성은 훼손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고대 사회의 원형적 축제는 사회통합적 기능, 사회 치유적 기능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며 전통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형적 축제가 갖는 축제의 원형성은 ‘제의성’, ‘일탈성’, ‘유희성’, ‘집단성’, ‘자발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원형적 축제는 주로 자연의 절기에 맞춰서 개최되거나, 공동체사회의 상징적인 기념일에 행해지거나, 관혼상제와 같은 사회적 의례와 연계되어 행해졌다. 필자는 원형적 축제가 가진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본원적 기능을 ‘사회적 치유’라고 보았다. 두려움의 극복, 부조화의 회복, 절대적 존재와 인간과의 합일,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적 치유’가 축제가

‘한강문화’ 총감독 · 작은축제학교 교장

이성진

Everybody · 누구나 — 전문가 클럽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본다. ‘치유’란 질병을 치료 하는 것을 넘어 ‘정상상태로의 회복’(healing, cure, recovery)을 의미한다. 사회가 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축제가 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 기구 현장을 통해 보면 “‘건강한 삶’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의미한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역시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회’를 의미한다. 전통사회의 축제는 결국 사회적 치유의 장치로서 기능하면서 공동체 사회의 ‘행복감’을 유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가.무.악과 놀이, 선의의 경쟁이 있는 경연행사, 가장 아름다운 의상과 장식, 가장 맛있는 음식과 환경연출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공동체에 제공해왔다. 단순히 무언가를 감상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참여하며 즐기면서 공동체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다보면 반복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개인간의 갈등과 균열을 메꾸고 봉합시키며 정서적 혼돈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정서적 원점상태로 돌려놓는 치유적 기능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공동체 지수를 갖고 있는 사회로 사회적 신뢰가 깨어진 위태로운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그것도 거의 모든 연령층(청년, 청소년, 40대,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자살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억압된 개인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할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자살은 선택된다. 우리사회는 수천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축제가 병든 사회와, 깨어진 공동체, 억압된 개인의 삶의 치유, 회복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축제가 가진 원형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축제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잊은 채 일회성 이벤트들과 차별되지 않는 방식의 축제들로 사회의 ‘축제 피로도’를 높여가면서 ‘축제 무용론’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될 때 ‘축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대한 몰이해로 만들어진 잘못된 축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며, ‘원형성’을 간직한 ‘사회 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축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제’는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치유기능의 총체를 보여주는 고도의 문화적 활동이며 사회적 자산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축제’는 그저 그런 일회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축제들은 개인의 삶에 아무런 감동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축제의 원형성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축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현대사회의 축제가 사회적 치유,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도시가 원하는 축제가 단순히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상품을 판매해서 도시를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축제의 원형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홍보 잘하고,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잘 연출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축제가 전통사회의 축제가 가졌던 사회통합, 정서적 치유, 개인과 공동체의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하는 보다 본질적인 축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축제라면 우리는 원형적 축제가 가졌던 ‘일탈성’, ‘축제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축제의 치유적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희망적인 것은 현대사회에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 속에서도 축제 수용자들이 주체적 역할을 하면 만들어 가고 있는 축제들의 주요 프로그램들 중에 이런 치유적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회의 DNA속에 잔존하는 기억들이 축제의 치유적 프로그램들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본다. 효용적 가치나 예산대비 효과, 긴 준비기간이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축제의 축제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치유적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로 우리를 전통축제의 원형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단 연행형태의 자발적 참여자들로 만들어진 퍼레이드나 집단놀이,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대규모 조형물이나 상징물, 거대한 불놀이, 대규모 시식 및 시음, 압도적인 화려함과 장식, 비 일상적 공간성의 구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놀이, 현대화된 기원과 정화의 의식 등이 현대 축제에 잔존하고 있는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인간이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위대한 절대성과 인간이 만나는 체험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 모두가 대단한 존재로 전환되는 지점을 경험한다. 이런 정서적 경험은 원형적 축제의 제의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냈던 정서적 경험과 일치한다. 이 경험이 축제성의 핵심이다. 1000명이 호흡을 맞춰 강강술래를 돌며 만들어내는 무리 속에 들어서서 경험하는 집단연회의 경험은 ‘나’를 잊게 하고 1000명을 하나의 실체로 만들며 개인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경험을 가능케한다. 작은 내가 거대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경험을 한다. 일본의 마쓰리에서는 수천명이 함께 같은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경험 역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가 가진 에너지를 경험하게 한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빠야 페스티벌에서는 수백개의 거대한 조형물을 하룻밤만에 태워버리는 의도적 소멸의 경험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묵은 정서적 상처와 갈등들을 불태우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효용성이 영향을 미치지 힘든 ‘작은 축제’들을 만드는 과정속에 우리 DNA속에 잠재되어 있던 축제의 원형성에 대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축제의 치유적 기능들을 담당하는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나게 만들고 다양한 치유적 프로그램들을 참여주체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한강몽땅’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긴 기간, 가장 큰 장소에서 개최하며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는 메가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5년째 맡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긴 기간동안 작은축제학교 교장으로 ‘마을단위’축제와 소규모 커뮤니티형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축제를 통해 만들어진 자발적 축제 공동체와 이런 축제들이 만드는 지역축제의 생태계만이 지역의 대형축제들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축제는 이런 축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 축제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격적 주체들인 ‘개인’이 만드는 매우 섬세한 정서적 활동이며, 밀도높은 문화적 조형물이기 때문이다.

# 광주 기관 망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광주다움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1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책의 짧은 역사에 비해 확장 속도는 매우 빨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원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여러 지표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어쩌면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조차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지역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중앙의 사업을 지역에서 대행해주다 보니 10여 년이 흘렀을 뿐이다. 그렇게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려나보다고 짐작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보하면서 법대로 올해 안으로 지역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야말로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기에 덧붙여 용역비는 예산이 없으니 특정 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은 2018년 국가 정책의 민낯이기도 하다.

그때의 황당함이 아직도 선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최종보고는 끝나버렸다.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도 부랴부랴 11월에 처음 열리게 되었고, 불과 2주만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도 치렀고 이제 정부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 비단 광주뿐만 아니다. 10월에 전국단위의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를 넘기는 지자체도 제법 있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난리법석을 피운 셈이다.

서론이 길었지만 다시 한 번 곱씹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실행이다. 2022년까지 앞으로 4년, 결코 길다고도 짧다고도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겹 한 겹 지역의 적폐를 벗겨내며 광주다움의 문화예술교육이 자리잡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4년의 계획 중 핵심적인 사업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가급적 많은 시민과 함께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청 설립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센터가 그러하듯 광주광역시센터 역시 문화재단에 속해 있으며 팀 단위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중장기 계획 없이 중앙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시스템 덕분(?)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역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형식적인 협의체 하나 만들지도 못했다.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문화재단 내의 광역센터가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제 광역센터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에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혹은 중앙정부의 사업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지양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허브(hub)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들을 모으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하고, 광주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과 문화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은 필수다. 이상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인원 보강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광역센터를 위해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청’을 제안한다.

둘째, 생활권에 문화예술교육 배움터 설치를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광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로 바로 이어져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연히 지역적 안배는 고려되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 단체나 공간의 분포를 보면 인구가 적은 동구가 광산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교육의 수혜자를 살펴보니 못했지만 광산구민의 상대적 소외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광주의 지도를 놓고 다시 그려야 한다.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자는 얼마나 많은가? 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배움터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배움터는 광역센터의 하위개념인 기초센터로 파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배움터가 생활권역에 따라 분포됨으로써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이 공급되며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 빅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배움터는 24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4년 내에 모두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 매년 2곳씩 4년 뒤 8곳만 설치하더라도 미션 성공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도시’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감안할 때 ‘도시·도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펼쳐 왔던 아시아 저개발국가 대상의 의료지원활동이다. 광주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ODA를 펼쳐왔다. 의료활동에 국한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하면 된다. 마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도 ODA를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회는 곧 온다. 국제교류보다 복잡한 형태이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고려사항이 아니다. 광주니까 해야 한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물론 수혜국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가야 할 4년의 길이 쉽지 않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광주는 안돼’가 일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 댓글들을 보면 ‘광주’기 때문에 기본(?)으로 달리는 악성댓글들이 있다. 놀랍게도 ‘광주형 일자리’관련 기사들의 댓글에는 그것이 몰라보게 줄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광주형 일자리’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도전했으나 실패하면 과정을 반추하여 능력을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 묻다. 당신이 생각하는

## ☺ **곽주영** 9기 모담지기

### **문화예술교육은 ‘열린 문’이다!**

유명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는 “사랑은 열린 문(love is an open door)”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처음 시작하는 사랑의 설렘을 표현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문을 통한 새로운 관계 또는 의미의 확장도 암시하는 노래라고. 문화예술교육도 이 노래에 나오는 사랑처럼 열린 문이 되어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술을 통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획일화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서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박상준** 9기 모담지기

### **문화예술교육은 ‘따스한 햇살’이다.**

나이,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이를 두고 따스한 햇살이라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사계절 내내 빛이 되어주고 사람들 마음속에 온기를 품게 할 수 있고, 낮은 곳이나 높은 곳까지 차별 없이 내리는 빛처럼 문화예술교육은 도처에 만연해있기 때문입니다. 손만 뻗으면 무상으로 오르는 햇살처럼, 관심과 약간의 행동만 있다면 지역시민 누구나 이 황금빛 기회를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봄이 오면 취재하기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봄의 향연, 피어나는 파사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꽃씨를 틔워주고 싶다는 선의 또한 마음속에 잠깐 담습니다.

## ☺ **송선아**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담당자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내용 혹은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직간접적인 창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예술과 삶을 보다 밀접하게 유지시켜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풀제도 운영,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교육자 역량 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김태은**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정책관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문화예술이 사회를 바꾼다. 창조력 없이 진보 없다.’ 광산구 교육정책팀에서는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뉘어 사업지원을 진행해요. 이 세 가지 명제가 우리 야호센터의 철학인 거죠. 문화 예술이 사회를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예술’을 주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예술은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오브제(object)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 것 즉 결과, 가시적인 것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은 스프릿(spirit)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술은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것이죠.

## ☺ **강민형** 바림 대표

### **사람들과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는 통로**

바림의 관심사는 현대예술인데 그 형태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벽을 허물고 싶고 그 방법으로—전시, 기획, 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사람들과 직접 상호 소통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실 현대예술에 대해 알고 접근할 기회가 부족한데, 이번 기회에 더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지만, 무엇이든 아무리 공부해도 좀처럼 쉬워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박우주 북구문화의집 팀장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나와 주변을 탐닉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탐닉한다는 말은 몹시 즐겁고 빠져있다는 뜻인데, 무언가를 관찰하고 면밀히 들여다보는 태도, 그 속에서 나와 주변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이 예술을 통해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 생각합니다.

## ☺ 김옥진 엄마꽃 마음놀이터 주강사

**문화예술교육은 예술로 가는 마중물이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살려 보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원래 예술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런데 예술교육이 잘 안돼요. 제가 바라는 문화예술교육은 스스로 어떤 것이든 예술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예요.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옷을 하나 사더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를 수 있는 미적 감각을 기르는 것이죠. 티 테이블에 티 매트 하나를 놓아도 그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게 되죠.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며 나의 취향,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게 모두 예술이 아닐까합니다. 하지만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 ☺ 국립광주박물관 에듀케이터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이란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문화, 예술, 교육.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문화전문가, 예술 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들기 위해 서로 교류를 이어나가죠. 박물관을 예를 들어본다면 전시실에 게시는 큐레이터와 저와 같은 에듀케이터가

존재하는데 서로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계획하죠. 그래서 소통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 조아라 은암미술관 강사

아이들에게는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들에게는 예술을 좀 더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를 공유하고 예술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 김태선 무등현대미술관 기획자

누군가를 교육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미래의 발명가, 예술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인류 역사에 작든 크든 이바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이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돕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최성욱 훈이오빠 홍보팀장

문화예술교육이란 기존의 예술장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예술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관광자전거 훈이오빠가 문화예술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와 진행자가 모두 열린 시각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현장 Scene

044

---

# Everywhere ◦ 어디에서나

---

139

취재 현장  
워크숍 현장



# 예술로 켜놓, ‘어디에서나(Everywhere)’ 문화예술교육 지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주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8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단체를 지원합니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일상 어디에나 문화예술교육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 광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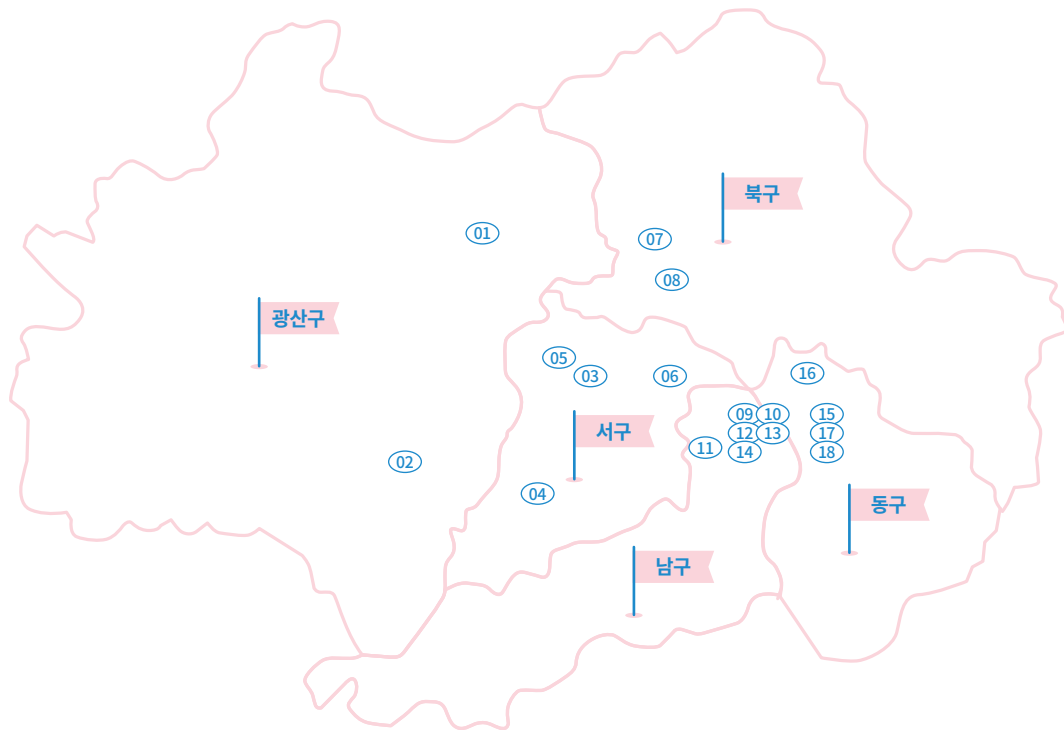
- ① 아호센터, 삶의 기술 워크숍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 ② 놀이터 아름, 광주 견문록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 서구

- ③ 국가폭력생존자 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 메이데이  
광주트라우마센터
- ④ 놀이요 점빵 '우리동네 신문사'  
서창향토문화마을
- ⑤ 시소학교& 뚜비두밥 재즈학교 교차수업  
서구청소년문화의집
- ⑥ 하카와히네 광주홀라걸즈  
화정로 279번길 3

## 북구

- ⑦ 엄마꽃 마을예술학교  
양산동 문화사랑방
- ⑧ 어린이목수축제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앞



Everywhere · 어디에서나 ————— 축제 현장

## 남구

- ⑨ 9기 통신원 모담지기 발대식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⑩ 문화집단 열혈지구, '꽃썰매 모놀로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⑪ 달할매학교  
월산동 순돌이네 작은도서관
- ⑫ 인큐베이팅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⑬ 경자씨와 재봉틀 졸업식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⑭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니나노'  
광주문화재단 앞마당

## 동구

- ⑮ 경자씨 화보 촬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및 하늘마당
- ⑯ 바림, 현대미술읽기  
대인동
- ⑰ 아트플랫폼 오르세, 어른동화 오월장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⑱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및 금남로 일대

# 최류빈

모담지기

행사명 9기 통신원 '모담지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문화예술교육의 전령, 제9기 모담지기 발대식 현장을 줌인 (Zoom-in)하다

추운 겨우내 흰 땅이 잔뜩 굳은 듯하다. 3월이 되었다고 봄은 자동으로 찾아왔는가? 차가운 세계, 과연 도처는 싱그러운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필두로 이어지는 각종 스캔들은 새로운 문화의 움을 틔우는 데에 장벽이 되는 듯 시퍼렇기만 하다. 다시, 3월이 되었다고 진정한 봄일까? 녹슨 땅은 아직 시린 건기처럼 툭툭 빠져거리고 나는 절기에 따라 저절로 오는 계절을 믿지 못한다.

저 굳었던 땅을 이마로 잔뜩 밀어내며 문화예술의 새순을 품고 몇몇의 청년들이 모였다. '모담지기'란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육이 표방하는 힘을 믿고 광주에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을 파종하는 9기 통신원들의 약칭. 일제 치하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되짚어 봐도 언제까지고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에는 분명 교육이 있었다.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중력이 분명해 보이는 시절, 역력한 겨울 안개를 거두고 봄을 다시 쓰려는 젊음들이 모였다. 여기 문화예술교육의 심박을 느끼는 새싹들의 초록(抄錄)을, 굳은 땅을 밀고 나와 소식을 전하는 붉은 이마들의 회동을, 부리를 펜촉처럼 갖고 문화예술의 현장에 투신하는 새들의 비행을 소개한다.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모이다

발대식은 2018년 3월 5일, 9기 통신원들의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총 7명이 선발되었는데, 봄기운이 역력한 3월부터 12월까지 일 년여를 책임지고 임한다. 작년에 이어 월 1회 기획회의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 생생한 기사를 송출하게 된다. 작성된 기사는 매월 3,000여 명의 회원에게 발송되는 온라인 뉴스레터에 수록되기에 모담지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전령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워크숍 기회를 부여하고 광주문화재단 주관 행사에 초대되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우선 전체적인 센터 소개와 모담지기의 역할에 대해 소개받았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 있는 통신원들이 다수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세하고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담지기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김홍석 실장의 위촉장 수여가 진행되었는데, 저마다 이름이 새겨진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화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역할에 무게감을 느끼는 듯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통해 앞으로의 막연했던 활동에 대한 두려움은 떨치고,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었다.

약간 딱딱했던 프로그램 다음에는 서로 소개하며 통신원끼리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생 위주로 통신원이 편성되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넘치는 기사들이 기대되었다. 모담지기라는 어원처럼 빛들이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는 공통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서로 간의 라포 형성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를 활자로 정제해야 하는 복합적인 활동이기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유기적인 모담지기가 되기로 이야기를 갈무리했다.

통신원들이 작성한 기사는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작이 되며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메일 입력만으로 정기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익하고 간편하다. 뉴스레터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단내·외부 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등 유관기관의 소식까지 폭넓게 제공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의 공통분모 아래 모인 7명의 모담지기들은 생생하고 선명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 년 간 분투할 예정이다. 마치 모든 바람이 저마다 부는 방식과 향이 다르듯, 각자의 문법으로 불어나갈 이채로운 기사를 기대해 봄 직하다. 바람처럼 문화라는 거대 범주 속에서 묵묵히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고 불어 나갈 것이다.

아직 손끝이 너무도 시린 계절.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모담지기는 아주 선명한 봄을 제시하려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완력을 통해 한 평씩 뜨거워지는 광주를 기대하며 시민 일반의 관심을 촉구한다.

# 공 사 학

모담지기

단체명 문화집단 열혈지구  
프로그램명 꽃줄마 모놀로그 “What is your true colors?”

## 아줌마 본색(本色), 진짜 나로 놀아보기

###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안다는 것을 무엇일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문화예술은 좋은 놀이터가 된다. 마음껏 뛰어놓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 취재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

4월 26일, 빚고을 아트스페이스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돈 것도 잠시, 참여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모이기라도 한 것처럼.



남구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 모인 참가자들



인생에서 가장 한스러운 순간 한 단락을 연극으로 나타내본다



화이트보드에 빼곡하게 채워진 참가자들의 이야기

### **나만의 예술노트 만들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예술노트에 대해 간단한 안내가 이어졌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5차시의 시간 동안 나만의 예술노트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적고 그려내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예술노트는 삶의 기록이자 자료가 된다.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까지 남길 수 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세대 간 공감의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오래 남길 창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 **흥(興), 나만의 신바람. 이야기를 나눠보자!**

간단한 안내가 끝난 후, 전경화 강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참여자들에게 물었다. 나만의 흥이 있다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지. 자신이 흥을 표출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야기 전에는 당부가 있었다.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편하게, 나이는 모두 잊고!”

잠깐 동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누가 먼저 나서야 할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깨지자 너 나 할 것 없이 삶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매일 아이를 돌보는 게 답답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국악을 들으며 흥을 느꼈어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 재미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자 박수가 절로 나고 몸도 흔들게 되는 게 신기했어요.”

“가장 우울했을 때 여행을 가요. 거기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죠.”

“민요를 부를 때 흥이 나요. 내 삶은 한(恨)스럽지 않은데, 이상하게 잘 표현되는 게 신기해요.”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울고 웃었다. 박수도 치고 고개도 끄덕이며 서로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마음껏 표현했다. 민요를 3개월 배웠다는 참여자는 성화에 못 이겨 사철가를 불렀고, 다른 참여자들이 따라 부르거나 추임새를 넣어주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전경화 강사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화이트보드에 정리했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구조화하여 보기 쉽게 그려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였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일방향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나가는 진행이 인상 깊다.





마련된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참가자  
무대 위로 걸어 나가며 연기하는 참가자  
스스로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 참가자



쉬는 시간에는 1층 작은 도서관이 북적였다. 아줌마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책을 찾아오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이나 구절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아줌마를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 **나를 꺼내줘!**

책을 찾은 후에는 찾은 책에 대해서는 나누어진 종이에 간단히 적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준비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짧은 즉흥극을 진행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나’가 튀어나오게 된다.

### **누구나 각자의 드라마가 있다.**

#### **짧은 이야기지만 단편영화처럼 펼쳐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들,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툭툭 던져졌다. 가공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즉흥극으로 펼쳐졌다. 누군가는 결혼식 30분 전, 신부대기실에서의 모습을 연기했고 또 누군가는 진상 아줌마, 정신을 놓고 춤추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



각자 자신만의 책을 찾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여자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아줌마가 된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즉흥극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쑥스러워하던 참여자들은 무대에 서서 몇 마디를 읊자 백팔십도 돌변했다. 자연스레, 서서히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하는 것 같았다. 책의 구절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지켜보던 나 또한 즉흥극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연기 속으로 빠져들며 진짜 자신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내면의 아픔, 사회를 바라보던 시선, 아줌마로서의 애환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줌마,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었다.

“갈 곳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는 오늘 이거 다 해놓으라 했는데.”

아줌마, 그저 중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듣는 그 단어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졌으며, 억척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줌마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취재도 처음에는 편견이 함께 했다. 중년 여성들이 진짜 나를 찾는다든 행위를 아름답고 애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으로서 잃어버렸던 삶, 그들이 잊고 있었던 꿈과 청춘을 되찾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이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것은 아줌마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런 의미만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고 그런 시선 속에서 잊어버렸던 아줌마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차시가 끝나고, 느낀바가 많은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전경화 강사에게 물었다.

**Q** 문화집단 열혈지구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문화집단 열혈지구는 문학, 연극, 영화, 사진, 미술, 미디어아트 등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콜라보 작업을 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 다변화하는 시대, 장르의 비틀기와 만남을 통해 의외의 상상력과 꿈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작업을 함께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도반의 길과 비슷하기도 하다.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하이퍼리얼리즘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삶과 예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예술가에게 독자와 관객의 존재가 중요하다. 간혹 자기애가 강한 예술가들을 보게 된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좁혀지지 않는 삶과 예술의 간극, 동떨어진 예술가 놀이가 시작된다. 가장 평등하고 열려있어야 할 예술판에 권력이 들어가고 학연, 지연이 들어선다. 어깃장을 놓고 싶어졌다.

이러한 반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화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수의 대중이 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하여 예술가와의 상호교류(interaction)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대안예술운동인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걸출기식 커뮤니티 아트가 아닌, 개개인의 감성과 그들만의 드라마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의의가 있다.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서로의 삶에 끼어들기를 허용하면서 예술적 감성과 감각을 일깨우는 뮤즈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진심이 필요하다.

열혈지구의 모토인 ‘삶은 곧 예술이다. 예술은 곧 삶이다’는 결국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무언가를 함께 찾는 과정에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순 없지만 위로할 수 있다. 예술의 위로는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고 믿는다.

**Q**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A** 우리 민족은 ‘한 오백년’을 부르다가 ‘태평가’를 부르는 민족이다. ‘한’이라는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다. 이것은 ‘한’이 되었다가 ‘흥’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일상에서 ‘흥’을 찾는 프로그램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흥놀이는 여러 테마로 변주되고 확장된다. 이번엔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흥놀이를 하는 셈이다. ‘나’에서 시야의 확장, 공동체로 더욱 넓혀간다. 인문학적 사유니 하는 어려운 말보다는 인문학 또한 어떻게 흥놀이를 변주해서 갖고 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통해 참여자들이 어떻게 일상이 “예술”적으로 놀이하면서 바뀌질 수 있는 지, 나의 삶 또한 특별함이 있다는 인식의 변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과정의 끝에서 비로소 나의 일상과 주변의 일상, 나아가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의 ‘아줌마’라는 계층에 대한 씬쓸하고 서글픈, 솔직하면서도 유쾌한 담론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인식의 변화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Q**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A** 차분한 말투 속에 묻어나오는 약간의 머뭇거림에서, 다시 또 느낄 수 있는 강한 열망들, 한 참여자와 처음 통화를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참가 신청을 하려는 데, 나이도 걸리고 남 앞에 서는 것도 걸린다고 했다. 영등포 인력사무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한 남자를 보고 시를 썼다는 엄마가 생각났다. 시는 감동적이었고, 묘사가 깔끔하고 소질이 있었다. 그 때 감동 받은 경험이 생각났다. 엄마보다 더 연세 드신 이 참여자에게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느껴졌다. 삶에서 선택과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언가 교주가 된 것처럼 “저를 한 번 믿고 오세요. 아니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는지 몰라도 그 분과 몇 분의 통화를 나누는 동안 상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그 분이 적절한 조명과 음악과 이미지의 조화 속에서 떨리지만, 집중 있게 자신의 말들을 풀어놓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무어라 정리되지 않지만 파도가 밀려오듯 몰아치는 감정의 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가슴도 휩쓸고 사라졌다. 밀려오는 잔물결 뒤에, 우리는 눈시울을 적셨다.

**Q** 프로그램 진행 때, 배경 음악으로 볼레로를 틀어주셨다. 그 때 잠깐 볼레로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단체의 주제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라벨의 불레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 정점을 위해 계속해서 변주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 점점 격앙되고 웅장하게 커질수록 감정 또한 계속해서 증폭 되가는 과정이 매력적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볼 때 흔히 A는 A라고 생각한다. 가십거리로 치부한다. 또 다른 상처나 폭력의 양상이다. 반면에 A를 확장해서 B, C, D……로 계속해서 변주하면 보다 더 다양해진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 방식, 혹은 내 주변부, 사회를 이렇게 한 줄기를 가지고 변주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곡이다.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서 첫걸음은 관점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보잘 것 없는 일상도 부풀어 뽕튀기를 한다면, 그나마 재미있게 해준다. 이러한 전제를 서두로 강의실 안에서 뽕튀기 장수가 된다. 참여자들의 몸짓과 말들에 적절한 터치를 하고 자극을 한다. 조금만 더 하면 뽕이요~ 외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 기적처럼 뽕!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온다.

## 아줌마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 아줌마로서의 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참여자들 스스로 찾아 갈 것이다. 꾸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미화시키지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과 진솔한 의미를 온전히 탐색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1월 3일 공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꽃쭈마 모놀로그 “What is your true colors?”는 앞으로 남은 23차시 동안 참여자 개인의 삶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자화상 그리기, 퍼포먼스, 희곡 낭독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다듬어 간다. 그리고 11월 3일 그 결실로 참여자들과 함께 만든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자신의 삶을 함축한 이야기로 즉흥극을 펼치고 있는 참가자

# 전 임유

모담지기

단체명 문화점방  
프로그램명 달뎬마을

## 오래된 것들

달뎬마을 '순돌이네 작은책방'에서 만난  
할매들의 새로운 시작

양력 5월 21일은 24절기 중 소만(小滿)으로 소만은  
햇별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고, 이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고  
식물이 성장하는 시기로 이 무렵 모내기 준비에 바빠지는  
시기이다.(출처 다음백과) 소만이 이틀이 지난 23일  
남구 월산동 달뎬마을을 찾았다. 우후죽순으로 자라난  
죽순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나물을 만들고 점심을 먹는  
달.할.매(달뎬마을 할매들의 인생이야기)를 만났다.



활짝 핀 꽃처럼 고운 어르신들



절기답게 태양은 오전의 공기를 뜨겁게 데우기 시작했고 달할매들이 활동하는 ‘순돌이네 작은책방’은 조용하고 시원한 그늘이 되어 할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할매들이 가꾼 꽃화분도 구경하고 할매들의 작품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나니 하나 둘 동네 마실 나오듯 할매들이 책방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보따리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 믹스코피와 허브차

오랜 세월 몸에 밴 버릇을 뒤로하고 할매들 각자의 시간에 맞춰 하나 둘 책방에 들어선다. 시원한 매실차는 웬일인지 오늘은 인기가 없다. 믹스코피가 취향이거나 허브차를 찾는 할매들이다. 매일 집 앞에서,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이지만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앞 새로 생긴 보건소에 가서 침을 맞고 운동을 하는 그냥 사는, 살아온 이야기들. 지난주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5.18민주항쟁 때의 생생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했다. 오늘은 죽순과 머웁대 요리법이다.

음료 취향처럼 다양한 요리법이 등장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같은데 삶을 때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소금을



어르신들이 가꾼 꽃과 서투르지만 정성스레 눌러쓴 글씨와 그림이 눈에 띈다.



커피잔 한가득 손수 짠 들기름을 소중히 담아 오신다.

끓기 전에 넣는지 후에 넣는지, 소금의 양은 얼마나, 들깨가루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통깨와 미원까지. 오랜 세월 할매들이 익혀온 최고의 비법이 쏟아져 나온다.

### 오래된 것들

할매들의 이야기와 요리법은 오래된 것들이다. 처음이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또 익숙해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와 닮아있다.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발현되는 문화.

새로운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자리 잡지 못하면 문화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 간다. 하지만 현대의 문화는 오래되기 보다는 빠르게 새것을 찾아가기 바쁘다. 최신 트렌드, 얼리 어답터, 신조어 그리고 다양한 줄임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새로운 것을 찾기 바쁜 문화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어서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 노력한다. 마치 오래된 것들은 유행에 뒤처졌고 필요 없다는 듯이.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뒤처지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그것이 최신 유행이 되기도 한다. 90년대 음악이나 가수가 다시 유행하고, 빈티지라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유리잔이나 소품들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래됨은 오래됨으로 다시 가치를 찾는다. 24절기니 소만이니 하는 것들도 오래된 것들이다.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소만을 지나면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한다는 오래된 계절감각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래된 삶의 지혜가, 농경문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전히 유효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지식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것들의 지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달할매들은 지금 이곳에서 생전 처음 접하는 '문화예술'을 만난다. 그림을 그리고 소품도 다니고, 사진을 많이 찍어줘서 좋고, 함께 꽃도 가꾸고 매주 점심 한 끼를 함께하며 현재를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다. 달할매들이 가진 소중한 오래된 것들과 문화예술교육이 만나 만들게 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머웁대를 벗기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본다.





달항매에서의 풍경은 느리게 지나간다.



들깨가루가 기본이 되는 죽순과 머위대는 아무리 오랜 세월 먹어왔어도 질리지 않는다.



## 강연 · 채성태

문화공간 책

## 정리 · 김한경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원

삶의 주인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일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차이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 좋은 멘토와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구성돼 있더라고요. 이번 과정이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기획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수업으로  
얼마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일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제출한 기획안들을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 있지 않더라고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여  
기획한다면,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동할 때 당당히 “제가  
기획한 문화예술교육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들 일반 교육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화예술교육은?교류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찾자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들에게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는  
앞에서 했고, 여러분의 소개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원서를 보니 경험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미션을 주면, 여러분의 단체나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5분 기획 · 여러분의 문화예술교육,

###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획하나요?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육하는 대상도 가족이나 아동청소년이 많아요. 그 안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단체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면 어떤 기획이 나올까요? 문화예술교육은 일반교육과 다르게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당신 또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라면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해 5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발표 할게요.

기획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특성상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기획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 안에서는 예상치 못할 여러 변수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어를 뽑아 생각해 보는 마인드맵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 단체를 소개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단체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분야의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모여 있어요. 자신의 단체에 대해 소개하면서, 서로 네트워킹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광주시티문화예술단

저희는 시티문화예술단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자유학년제와 공연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꿈다락 지원하면서 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광산구 월곡동에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고려인, 새터민, 카자흐스탄 등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춤’을 이용하여 하나로 묶어 보고 싶어요. 각국 문화를 함께 토론하고 나라별 춤을 추며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죠. 소통이 단절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춤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 베이스튜디오

음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베이스튜디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해요. 옆 나라 일본은 1인 미디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유튜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요. 1인 미디어 제작을 부모와 대화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아 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수 있고, 부모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 아시아프(이태희)

저희는 작가들끼리 전문적으로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색깔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했고, '7빛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 꿈지기멘토스토리

아동·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성장을 통합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일로,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으로 바빠  
가족 간의 소통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조각 만들기 수업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단절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 사회단체 한국실용음악심리협회

요즘 가족 안에서 소통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만의 '주제'를 만들어 각 가족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이것이 우리 가족만의 문제만이 아니구나.'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영상문화를 확산하고, 연대하는 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광주에 새로 생긴 독립영화관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이나 남성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영화를 매개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고 자랐던 재미있는 영화를 추천하면서  
프로그래머 교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 봉다리콘텐츠연구회

저희는 영화일기를 통해 인문학과 음악치료를  
접목시켜 활동해왔습니다. 저희는 교도소, 미혼모센터,  
청소년쉼터를 주로 다니면서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족,  
조손가정, 환우가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진짜 표정을 찾아주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 재미있고 활기 있는  
기획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한배를 탭니다. 각 단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조금 아셨죠? 오늘 네트워킹은 기획을 실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기획한  
문화예술교육이 미미하게라도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족 안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존재할 것이고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기획해본 것이 일반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으로 두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육을 했을 때,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나요?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나요? 정말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대상에게 상처주지 않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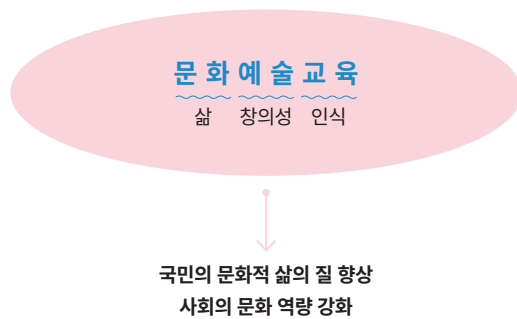
### 배경은 넓고,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 프로그램 내용은 표현 방법 전달의 나열

문화예술교육 기획서라고 읽어보면 실상 일반교육과 다를  
바 없는 주입식 교육이 많아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까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반교육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은 기획자가 하고 싶은  
교육 욕구에 대해 수요 대상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할  
때 그래요. 따라서 누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오해를 풀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문화적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은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땅과 밀착된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삶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은 긍정적 선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고, 함께하는  
타인과 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스스로 정의해보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은 돈의 액수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다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읽어졌어요. 저는 이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해 기대가 돼요. 이 수업은 초석이고, 다음 수업들이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에요요.

‘문화’의 정의에 대해 말해주실 분 있나요? 우리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술, 교육이란 단어가 붙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문화는 자연현상을 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죠. 생활양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생활습관, 예술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다보니 예술을 앞에 놓고, 문화를 그 하부 구조에 넣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한 마디로 몇 부리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술은 무엇인가요? 예술은 어떤 종목이 아니라 창의성을 말합니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육은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한계가 없는 것이고, 수요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 대상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것만 대상에게 들이밀면, 일반 교육이 돼 버려요. 대상이 컵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갖고, 컵을 보며, 음미하며, 사고를 끌어내는 것이 일반교육과 다른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우리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두고, 또

돕는 것을 넘어 함께 가야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강사와 참여자, 그 주변의 변화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요. 문화예술교육은 어찌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앞과 뒤에 대한 고민을 해야해요.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문화예술교육에 나타나게 됩니다. 삶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어떠한 영역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의 현주소

2005년 문화예술교육법이 제정된 후에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제정 초반에는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만 구분되었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과 같이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들이 생기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사람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누구든지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사업 유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교육지원센터에 사업을 낼 때,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유형을 자세히 보면 우리 지역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역할은 교육지원센터가 모르는 것을 제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센터와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책임감을 모르고 지나치는데, 자기 자신을 보파리 강사같이 치부해버리면 위험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갖는 권리, 생활권 보장에 대해 우리는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예술교육에 좋은 자양분이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투자해도 막상 현장을 가보면 문화예술교육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단순히 애들을 교육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요자조차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놓고도 그게 뭔지 모르구요. 그러한 단계를 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수요계층별,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대상에게 맞는 분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다면, 단체소개, 단체 지향점 등을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거나 나열하지 않고, 목표가 정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하며 당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면, 그래서 사회 여러 영역들에서 인정 해준다면, 이 분야에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기 정부부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 예술 행사쯤으로 알고 있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을 연결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교육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은 부처별로 많은데,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제대로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 왜 우린, 문화예술교육으로 수요 대상자를 만나려 하는가?

여러분이 내신 사업계획서에도 음악, 춤, 영상, 미술심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요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은 바뀌질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을 만나야 되는 이유나 목적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하고요. 개개인별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수요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 대상을 만나려고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삶’과 연관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재밌을 것, 흥미 있는 것, 잘하는 것을 통해 대상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섬들을 찾아다녔어요. 섬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이 섬문화를 아이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을 답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섬의 가치를 알고,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어느 섬에 갔더니 이 칼라색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 아이 좀 만나달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아이와 시간을 두고 친해지면서, 마을의 골칫거리인 이 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의 형이 바닷가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고, 어른들 모두 그 죽음의 탓을 아이에게 돌렸더라고요. 외톨이가 된 아이는 혼자 생각하고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곳곳의 숨은 장소를 발견하고 그 장소를 친구로 삼았어요. 그런 능력을 적용하여 그 아이를 선생님이로 삼고, 그 이야기를 수업의 모티브로 삼았어요.

아이의 자신이 쓰임 받고 인정받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꺼내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와 이야기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과 장소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도 그 아이와 소통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쓰임을 수업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지역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했습니다. 그동안 가르치는 방법만으로 접근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이가 현실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제가 돕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겠구나 깨달았어요.

###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함께’하는 출발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거 하면 재밌겠다, 저거하면 재밌겠다 생각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실행했을 때 괴리감이 생기고,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함께’의 의미를 인식하고 ‘함께’ 주장하고 있나요? 일방적 중비된 교육 프레임 안에서 강요로 함께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교육적 관계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방향과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교육 실행과정만이 아니라 계획하는 준비과정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운영진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대상과 운영진의 서로에 대한 여건과 입장, 교육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공유하고, 합의된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이것만은...**

#### **만남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의 지원서는 광범위하지만, 실행했을 때 한계가 분명 있어요. 교육대상을 왜 만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한 만남인지에 대해 성찰의 기회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깊이 만날 수 없어요.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관찰이 아닌 관심의 관계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선생님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자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요자는 자신이 관찰의 대상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된 순간 수업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것들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그렇다면 아이가 스스로없이 자신에 대해 열게 됩니다. 강사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모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지속될 수 없어요. 교육대상을 만나기 전 사회분석, 삶의 분석에 대해서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행에서는 관찰자의 시작에서 벗어나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관찰의 대상으로 인지되어 버렸을 때는 수요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 **아이템만으로 교육을 기획하지 말라.**

사업계획서 대부분 책상 안에서 아이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집중해서 들여다 봐야하는 것은 교육대상입니다. 교육대상에게 친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실행과정에서 교육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읽고 대상의 가능성을 고려한 삶의 교육이 되도록 아이템을 현실에 대입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일상의 모든 요소가 사고할 기회이며**

####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요소이다.**

삶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상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상은 깊이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부터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또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은 가르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당당해져야 해요.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두 다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비전 없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으신 여러분, 올해 많이 배우시고, 시행착오도 겪으셔서 내년부터는 아주 좋은 기획들,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류빈

모담지기

##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선정단체 교육프로그램

여기 꿈의 다락방에 오르내리는 어른들이 있다. 예술이 펼쳐는 상상력과 놀이가 주는 즐거움을 믿고 아동, 청소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꾸려 가는 선정단체들이 바로 주인공들! 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주말에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예술가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소질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하여 유대감과 자의식을 함양하고, 이채로운 예술적 포즈를 체득하게 된다. 이 유익한 프로그램의 주체인 인큐베이팅 선정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6월 5일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꿈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튼튼한 기둥을 형성하는 이 시간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담아본다.



마음놀이터 김옥진 강사와 인큐베이팅 단체들의 교육활동



## 예술이 살아있는 토요일을 위해

프로그램 교육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친교활동과 자연스러운 체험을 통한 예술 교육과 네트워킹이 진행되었는데, 꼼꼼하게 준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여 단체로는 한국실용음악심리협회, 봉다리콘텐츠연구회, 광주시티문화예술단, 베이스튜디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등이 있었고 저마다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었지만 모두 한데 둘러앉아 한 배를 타는 듯 했다. 특히 고전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었던 연극, 미술 등의 장르와 더불어 음악, 영상(유튜브), 이미지와 같은 새로운 장르가 선정되어 프로그램이 더 풍성하다는 생각이 오갔다.

교육프로그램은 데면데면했던 분위기를 녹이기 위함인지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서로를 소개하는 단순한 행위가 갖는 힘이라는 게 참 커서, 서먹하던 첫 대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 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커다란 실 뭉치를 받았다. 원하는 만큼씩 실을 끊어 가져가 비슷한 길이의 상대와 그룹을 맺었는데, 단순한 실 끊기에서도 성향의 차이가 확연해 다양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토요문화학교도 다채로운 장르와 저마다 개성 있는 참가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완곡하게나마



어르신들이 가꾼 꽃과 서투르지만 정성스레 붙여온 글씨와 그림이 눈에 띈다.



실 끊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웃음꽃을 틔우는 모습

다양성을 인지하고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끊겨가는 시대를 역설적으로 '실 끊기'로 배웠다.

이후 진지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미지 만들어내기와 같은 재밌는 활동들이 병치되어 진행됐다. 낯설었던 서로에게 등을 내어주기도 하고 머리를 긁어주는 몸짓들은, 역시 빠르게 사람이 가까워 지기위해서 방벽을 풀고 몸을 부딪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앞으로 가장 전선에서 문화예술의 정수를 나눌 인큐베이팅 단체들이 생각의 울을 깨뜨리고 자연스럽게 방법론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음악, 예술, 가족 소원(疏遠)했던 구간의 접점을 찾아서

토요문화학교에 대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한국실용음악심리협회 프로그램의 임창숙 기획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실용음악심리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A** 네, 저희는 광주 서구에 자리잡고 있는 실용음악 단체입니다. 우쿨렐레나 앙상블, 보컬에서 기타, 취미반 까지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포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음악 학원과 차별화가 되는 지점은 문화기획을 통한 꿈의 도전(Challenge for Dream)인데요 일반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쉽게 성취할 수 없는 예술적 역량과 이와 관련한 희망들을 현실화 하는 것을 기치에 내걸고 있습니다.

**Q**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가의 동기와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이른바 음악을 통한 가족성과 유대감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나 또래 이야기를 '노래'라는 소재로 만들어 내면서 오는 체험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SNS나 일기장 정도가 최선인 것만 같은 각박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해 보고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생각까지 표출해보는 재미있는 경험을 나누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들이 또래가족 추억 만들기까지 확장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가사로 또 노래하는 과정을 사진첩이나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다중적 미디어 플랫폼,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아마 가장 큰 특장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거예요.





**Q** 토요문화학교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우선 계획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의 진의를 프로그램 기획자인 저희도 발견하는 것인데, 이른바 '기획서의 도달'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아닌 공공선의 창출과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공감에까지 프로그램이 수족을 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의 '힘'입니다. 기획자들이 마음속으로 구상만 했던 아이디어들의 구체적 '구성점'을 제공하고, 교육의 완력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예술가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예술의 더 큰 효용을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단체들의 돌아가는 표정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문화예술교육'이나 '토요문화학교'와 같은 한 문장에 깃든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참여자에게 인생에서 단 한번뿐인 전환점이 될 수도 발상의 물꼬를 트는 예술적 진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익한 교육을 통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문자 그대로 더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선의, 여기 담아 줄인다.



# 선단비

모담지기

행사명 경자씨와 재봉틀V '창춘클렉선' 화보촬영

## 경자씨의 화려한 외출

햇빛이 살갗을 파고드는 어느 여름 날.  
며칠 간의 무더위로 불쾌지수는 하늘을 찌르지만  
ACC하늘마당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느새 5번째를 맞이한 <경자씨와 재봉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자씨들 제작한 가방을 화보로 남긴다. 직접  
모델로 서게 된 어머니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고  
진주목걸이, 코사지 등 여러 장신구들을 매치하여 한껏  
멋을 냈다.





도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머니



박경희 어머니

촬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파트타임을 나눠 진행되었다. 작품과 모델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늘마당뿐만 아니라 도청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음이 울릴 때마다 어머니들은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에 적응해간다. 초반의 그들은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서히 긴장이 사라지면서 그 어떤 모델보다도 빛나는 자태를 보여주었다.

한편, ACC 커뮤니티존에서는 촬영을 마무리한 경자씨들이 모여 계신다. 이곳에선 지금까지 만든 가방을 직접 그려보고 가방의 컨셉을 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된 연필과 사인펜, 크레파스로 그리고 색칠하며 하얀 스케치북이 가지각색의 가방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금까지 경자씨와 함께 지내온 시간을 되새기는 어머니들. 가방을 그리는 데 몰두한 나머지 하하호호 웃음으로 가득 찼던 방도 어느새 잠잠해졌다.

### ‘마치 화사한 여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오늘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주신 박경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Q** 오늘 화보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가 나를 위로해줄 수 있어 행복하단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사진작가)께서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실 때 문득 내가 ‘귀한 존재’로 느껴져서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회 만들어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Q** 어머니의 가방 탄생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A** 평소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성격대로 색상도 블랙 계열로 가고 화려한 것 없이 단정하게 디자인 했어요. 원래는 크로스백 용도로 쓰이는 디자인이지만 끈을 떼고 클러치 백으로 활용했고요, 사실 이 스타일의 가방엔 정장이 어울리는 데 그렇게 입고 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가방 만드는 과정 자체는 조금 어려웠지만 제 방식으로 만들어보니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항상 명품 가방 완성된 것만 봐왔었는데 이걸 내가 직접 그 과정을 겪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Q**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한 가방이 완성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제가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던 어머니들과 만나 처음 자기소개를 듣는데 ‘내가 여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란 생각에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분들 덕분에 마무리될 때까지 웃으면서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느껴졌죠. 사실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이번 모임은 정말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온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참 여유롭게 느껴졌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했죠. 가방도 욕심 안 내고 딱 주어진 것을 채워가니 ‘아, 이게 내 마음인 것 같다’는 느낌, 제 꿈과 희망도 하나하나 채워가는 느낌이었어요.

### ‘결혼식 이후로 가장 설레는 날이네~’

이어 화보 촬영을 마치고 오신 강영희 어머니께서도 짧은 소감으로 운을 댔다.

**Q** <경자씨와 재봉틀>에 참여하는 계기는?

**A** 작년 경자씨와 재봉틀에 참여했던 친구가 너무 좋아서 해보라고 권유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 듣던 것보다 더 좋아요. 아쉬운 건 여기가 한 번 하면 재수는 안 된다고 해서 친구도 한 번 참여로 끝냈어요. 전 시켜주면 할 수 있는데(웃음) 재수는 안 시켜준다네요.

**Q** 직접 모델로 화보 촬영에 임하셨는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가 평상시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되었는데 그래도 촬영하시는 분이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부터 화보 촬영한다고 결혼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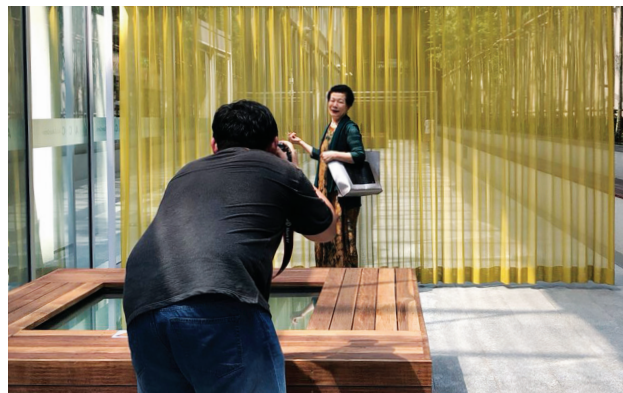
이후로 처음인지라 엄청 설레서 아침부터 예쁘게 하려고 머리도 모양내서 빗고 왔어요. 촬영할 땐 뿌듯한 느낌도 굉장했고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Q**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평상시에는 제가 봉사단체에서 봉사만 열심히 했었어요. 그 중에서 나의 만족도도 있지만 봉사라는 게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조금은 아쉬웠죠. 하지만 ‘경자씨’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 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즐거웠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Q** 앞으로도 경자씨와 함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A** 당연하죠. 오히려 안 불러줘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 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웃음)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세월이 지나도 ‘경자씨’는 내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아요. 가방은 영원히 가지고 다니다가 딸에게도 물려주려고요. 담당하시던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 경자씨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니까요? 다른 인문학 강의들도 듣고 다녔지만 그런 곳은 강사님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듣는 입장이지 않아요. 여기는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형성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재수도 꼭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도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강영희 어머니는 어머니





경자 씨들의 결실, 가방이 한 곳에 모여있다



인터뷰에서도 경자씨를 향한 어머니들의 애정이 묻어나왔다. 아마 계획을 진행한 문화기획사 <라우>가 딸의 마음으로 경자씨를 만들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들은 그들의 진심을 전달받기라도 한 듯 큰 호응으로 보답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라우>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았다.

**Q** <경자씨와 재봉틀>이 이번엔 가방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A**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봉 수업을 진행했는데 작년부터 가져 온 기준은 ‘재봉틀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였어요. 실제로 재봉틀이 어머님 인생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옷을 만들게 되었는데,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재봉틀의 끝판왕이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봉틀을 오랫동안 배워야 옷 만들기가 가능해서 어머니들은 재봉틀 기초와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만 진행하고 제작은 다른 기술자에게 의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점을 보완하고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 가족가방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옷만큼이나 가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여성들이 나갈 때 옷을 입고 두 번째로 가방을 메니까요. 어쩌면 어머니들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 중의

하나가 가방이 아닐까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어머니들은 어떤 가방을 좋아할지, 우리를 만날 때 어떤 가방을 들고 오실지’ 어머니들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가방이 담겨있는 의미가 충분히 경자씨 어머니들의 인생을 알아가는 데 귀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A** 작년과 올해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작년에는 본인 몸에 맞는 치수를 재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만들었는데, 가방은 강사님의 운영방식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가방 디자인이 제한되었죠. 대신 가족의 상태나 바느질 기법, 디테일 장식 등을 달리하여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지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다는 점이 아쉬웠죠. 하지만 결과물을 어머니들이 직접 끝까지 만들어볼 수 있던 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화보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때 어머니들께서 화장과 헤어 정도만 신경 쓰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방 촬영한다고 하니 화장뿐만 아니라 옷과 소품 등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서 어머님들 스타일로 훨씬 갖춰서 오셨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주인공이 가방이지만, 그래도 이걸 만드신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평소보다 더 꾸미신 모습으로 오시니까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졌죠.



외약별에서도 어머니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촬영에 임한다



Q 앞으로 다른 내용으로 경자씨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팀은 4명의 여자가 함께하는 팀인데 2명은 유부녀고 2명은 싱글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들 모두 엄마가 되고 경자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자씨와 재봉틀이란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계속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어디에선가 항상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운 좋게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경자씨와 재봉틀>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성 문화기획자로서 지녀야 될 숙제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갈 겁니다.

요즘은 젊은 나이지만 엄마라는 이유로 청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연 엄마는 청년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엄마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도서관에서 진행 중이에요. ‘청년’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젊은 남성, 2·30대 열정 넘치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똑같은 2·30대 여자들은 결혼, 육아, 출산에 얽매어 있거든요. 지금 청년 사업들이 얼마나 엄마들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생각하다 ‘이런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느꼈고 계속 비슷한 주제의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연관된 사업들, 특히 어머니의 삶을 주류로 삼고 끊임없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딸도 언젠간 어머니가 된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세월을 맞이하다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있다. 하지만 엄마도 청춘이다. 비록 마냥 푸르기만 하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삶을 그려나가지만, 직접 손으로 꿰매고 만든 가방들과 함께 이 시간을 즐기는 엄마들을 보며 청춘은 젊은 자만의 소유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그녀들의 행보를 기대하며, 경자씨의 재봉틀은 멈추지 않는다.



직접 가방을 그리시는 어머니들

# 선단비

모담지기

행사명 경자씨와 재봉틀 V - 청춘콜렉션 졸업식

## 오늘 우린 경자씨를 마칩니다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 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 소크라테스(Socrates) -

무더운 여름, 제각기 다른 삶을 안고 달려왔던 어머니들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청춘콜렉션에 발길을 멈추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동안에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경자씨’가 되어 자신의 꿈을 재단하고, 엮고,  
만들어왔다. 하지만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하지 않은가. 10주간의 여정을 마친 이들은 이제  
경자씨로서 지내 온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경자씨와 재봉틀, 그 다섯 번째 피날레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을 찾아갔다.



마음놀이터 김옥진 강사와 인큐베이팅 단체들의 교육활동

현장에서는 어머니들의 가방 소개와 함께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꽃다발을 받은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띄며 감사 인사를 전하면 모두 박수로 응해주었다. 이후엔 프로그램에 버팀목이 되어 준 이들이 강단 앞에 모여 소감들을 하나 둘 풀어간다. 그들 하나하나만 놓고 본다면 공통분모를 찾아보기 힘든 조합들이지만 ‘경자씨’란 교차점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수행해왔지만 마음은 늘 경자씨와 함께 달려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조성된 현장이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상장과 꽃다발을 받는 어머니

### **“일상과 예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해야 한다.”**

행사장 한 편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어머니들의 가방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전해진다. 온갖 수고와 고난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된 그녀들의 예술. 특별하게 탄생했지만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될 것이다. 어느 덧 행사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다. 무엇을 해도 아쉬움만 남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다함께 열창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순간을 남겼다.

이어 벨루어 가족공방 김민수님과 함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지금의 경자씨를 만들어 준 수많은 얼굴들





행사장 한 편에 전시된 어머니들의 가방



**Q** <경자씨와 재봉틀>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처음엔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과물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바느질이 빠듯한 단면 마감이 서툰 간에 이 가방이 어머니들에겐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의미 있다고 보여 졌기 때문이죠. ‘가방의 퀄리티를 볼 게 아니고 결과물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교육이란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게 제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Q** 경자 씨와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광주문화재단에서 먼저 연락이 와주신 게 인연이 되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시작은 우연이지만 이러한 계기 덕에 오늘 졸업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가방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어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가방 디자인을 저희가 컨셉을 잡아놓았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작은 가방부터 큰 가방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첫 날 어머니들이 오셔서 가방 디자인을 확인하셨습니다. 저희 공방에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직접 마음에 드는 가족들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앞뒤가 동일한 가족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앞뒤가 다 다른 가족을 쓰셔서 기본에 따라 바뀌 들겠다고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죠.

가족의 색깔까지 전부 정했다면 두 번째 날부터는 가족에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 직접 어머니들이 바느질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털이 좀 날리다 보니까 단면에 마감재를 처리해줘야 하는 데 어깨 끈하고 몸판하고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가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장신구로 다는 과정까지 크게 분류되어 진행했습니다.

**Q**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A** 어머니들이 시력도 안 좋으시고 몸이 자기 마음처럼 안 움직이신 데도 가방을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게 살짝 전율이 오거든요. 과정은 지루하고 힘든데 마지막에 전부 완성 되서 어머니들이 어깨에 딱 매는 순간에 어머니들의 표정들을 보면 ‘아, 내가 이번 교육도 성공했구나!’ 그런 성취감도 한꺼번에 느껴져요. 어머니의 기쁨이 곧 제 기쁨이기도 하는, 그 완성된 마지막 순간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죠.

**Q**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경자씨와 재봉틀> 함께 연을 이어올 것인지, 벨루어공방의 향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오늘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어머니들은 ‘더없이





졸업식 기념사진

잘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시지만 항상 마지막이 그랬듯이 아쉬움이 또 남더라고요. 앞으로도 ‘만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다채롭게 구상하고 더 어머니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서 교육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할 생각이예요.

“앞으로 빛나는 순간마다 이 가방이 함께 할 겁니다.”

둥글게 둘러앉은 어머니들은 느껴 온 모든 것을 스스럼없이 고백했다. 즐거움, 아쉬움, 고마움. 복합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다. 사실 어머니로서의 삶이 이토록 빛날 수 있던 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이유만으로 꽃을 나눠주고 함께 축하받는 이 공간 속에서 그간 여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다.

비록 이 행사를 끝으로 어머니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들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길, 온전한 ‘나’로서 세상에 나가길 바란다. 다섯 번째 경자씨의 졸업식, 축하드립니다!



경자씨의 마지막이 뜻깊게 느껴진다는 벨루어 가족공방 가족들

# 공 사 학

모담지기

##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탐방기 남녀노소 노을자~

10월 20일 토요일, 점심이 지난 오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시끌벅적하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동그란 토끼  
눈을 하고 쓱덕거린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곧이어  
자연스럽게 행사장 안으로 이끌린다. 활기찬 에너지에  
저도 모르게 들어선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니나노.

하얀색 후드티를 입고 스태프 명찰을 목에 건  
진행요원들에게 다가서면, 아주 친절하게 행사장에 대한



체험활동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아트날라리 인기 마스코트 백설공주



깃발 들고 나나노~



가면에 색을 칠하고 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취재해야 하지? 압도적인 행사장 규모에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나도 이 축제를 즐기러 온 한 명의 참여자가 되어보기로 한다.

먼저 본부에 들러 행사배치도 리플릿을 받아온다. 리플릿을 펼치면 행사 장소와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기념품 획득을 위한 스탬프 판도 있다. 선착순 500명에게만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하니, 갑자기 승부욕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고정 미션 두 가지(백설공주와 사진 찍기, 깃발 그림 그리기)와 부스에서의 체험 세 가지를 마치면 스탬프 다섯 개를 모을 수 있다. 백설공주는 찾지 않아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다. 다만 아이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으니,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기다려야 한다.

다음은 고정 미션인 깃발 들고 나나노를 클리어 하기 위해 공연무대 앞으로 이동했다. 색색의 깃발이 한 무더기로 꽂혀있는데, 곧바로 여기구나 했다. 아무것도 없는 깃발에 크레용으로 나만의 글, 그림을 덧입혀주고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54개나 되는 체험부스를 돌아다닐 차례이다. 아, 물론 54군데를 모두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심 있는 곳을 들어가 보면 된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문화집단 열혈지구의 체험부스이다. 색색 깔깔 내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다채로운 색을 활용해서 얼굴가면을 만드는 체험이었다. 흰 가면 위에 준비된 물감을 뒤섞어 색을 칠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행위에도 개개인별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는 강렬한 색으로, 또 어느 누구는 은은한 색상으로. 비즈를 잔뜩 붙이기도 하고, 깃털을 붙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 가면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다음 방문한 곳은 (사)청년문화허브의 보노보노 인생학교-비밀 고민상담 편지에 답장쓰기 체험이다.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폼 보드에 익명의 고민이





청년 B의 고민에 답장 써주기



팽이 만들기 체험

인쇄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고민에 답장을 써주는 것이다.

청년 B의 고민은 현실과 타협해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할지, 하고 싶었던 미술공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고민이어서 그랬는지 답장이 무척이나 길어졌다. 쓰다 보니, 마치 내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 울컥하기도 했다. 답장을 모두 쓰고 나니 옆자리에서 함께 편지를 쓰던 참여자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실례를 무릅쓰고 잠깐 인터뷰를 요청해본다.

#### B에게 답장을 써주던 한 참여자

- Q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에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 궁금해요.
- A 친구가 촬영하러 왔는데, 따라왔다.
- Q 오늘 행사에서 어떤 것을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 A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 뜨개질을 한 시간 동안 하고 왔다. 매우 의미가 있었던 체험이다. 노력한 만큼 얻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 Q 청년 B의 고민에 대해 열심히 답장을 써주시던데,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 A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B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으면 좋겠다.
- Q 그렇다면, 참여자 본인은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 A 꿈은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국제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빨리 2역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웃음)

고3(19), 주민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놀이문화교육협회의 팽이 속으로 풍덩, 웃음꽃이 활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담은 팽이를 만들 수 있다. 먼저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엽서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음에 팽이를 만들게 된다. 작은 나무 팽이에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색을 입혀주는데,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있다.

체험이 끝나고, 다섯 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자 이상한 뿌듯함이 밀려온다.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왜

이런 것에 기분 좋아하고 있지? 홀로든 의문도 잠시,  
 시끌벅적한 행사장을 둘러보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문화예술이란 그런 것이다. 순간의 몰입(Flow)을  
 만들어내는 것. 미국의 유명한 석학, 칙센트미하이  
 는 몰입을 그렇게 정의했다. ‘몰입이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있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느낌말이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  
 가지의 체험활동을 하는 순간마다 그 곳에 흠뻑 빠져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완수한  
 미션이니 당연히 뿌듯할 수밖에.

행사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각기 좋아하는 것을 보고  
 즐기며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그들 각자의 몰입이 한데  
 모여 개인의 합보다 더욱 큰 전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예술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팽이 만들기 체험



줄업식 기념사진

# 최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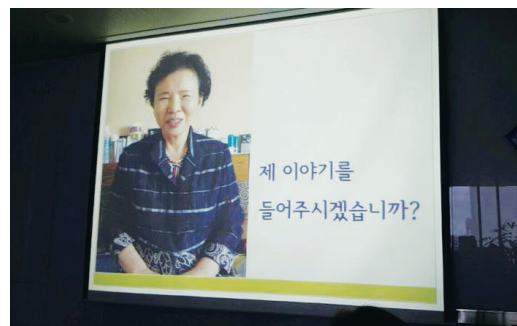
모담지기

행사명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생존자 증언치유 프로그램

## 트라우마 극복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메이데이(mayday)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까?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것과는 다른 방식임에 분명하다. 깊은 마음의 상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삶의 곪을 한 움큼씩 덜어 빛을 되찾아주는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다녀왔다.

‘트라우마’란 물리적 혹은 심인성 요인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데 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며, 특정한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정의되곤 한다. 트라우마 센터는 문자 그대로 ‘트라우마’의 상담과 인문학 강좌, 소식지 발간과 더불어 특히 ‘마이데이’프로그램을 통한 토크쇼 형식의 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박선영 열사의 모친 ‘오영자’씨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해 들었다. 딸의 죽음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 없이 부끄러움의 나날만을 보내 왔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힘이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슬픔의 크기는 딱 사람하나의 크기만 하지 않은가보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충성서약을 한 신임 서울교대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정치적 이용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서울교대를 다니다가 비민주적 학내 운영체제 등에 반발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한 박선영 열사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유리당하던 개인들의 고통을 절감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오영자씨는 그녀의 유서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철저히 슬픔을 탄압했고 유서 또한 압수해갔다. 주검 위에 면포를 덮고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나이는 이제부터 딱 한 살이다. 선영아 너는 네 목숨보다 민주화가 중요했나보다. 너는 살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 네 못 이룬 꿈 내가 이룰거다.”

트라우마센터라는 명패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선명하다. 이 좋은 자리가 삶의 목직한 한 구석의 절망을 희석시킬 수 있을지 반문해보곤 했다. 처음엔 그랬다.

#### 분분한 삶이었다.

그는 한 시절의 ‘엄마’였다. 계엄군에 잡혀가는 학생들을 두 트럭씩 빼내고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연성을 높이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찢어버리고 독방 옥살이를 하며 고문실에 갇혀서도 그는 유리창을 깨버리는 등, 당당하고 실행력 넘치는 엄마였다. 삼십여 년 이상의 분투 중에서 한 조각을 꺼내놓았을 뿐인데, 장내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지나간 역사는 결코 활자로 모두 얻을 수 없기에, 살아있는 삶의 체험적 진리를 어렵사리 끌어안느라 모두가 분주했다.

참 분분한 삶이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거울을 보지 않는 미련한 엄마, 그러면서도 딸의 사진을 데모 현장마다 가슴에 품고 겁 없이 뛰어드는 용감한 엄마. 종일 가족 몰래 통곡하다가도 밥 할 시간이 되면 벽을 붙잡고 부엌엘 가 남은 아이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그 시절 힘없던 한 여자가 거대한 세상을 온 몸으로 맞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웠다. 단상 위 테이블에 물병 두 개가 가만 놓여있다. 문득 그가 하나를 들자 남은 하나, 진동 없이도 거칠게 흔들린다. 소중한 하나를 잃는다는 건 모든 것의 상실, ‘트라우마’라는 비일상어가 가슴을 막 헤집고 들어온다.



### 슬픔의 중력, 우리가 같이 걸어줄게

그는 증언을 이어가면서 자꾸만 자신을 못한 엄마라고 불렀다. 빈 의자를 앞에 두고서 딸 선영이가 돌아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냐는 말에, '더 투쟁하고 더 열심히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답할 정도로 마음의 짐이 무거워만 보였다. 저 빈 의자에 앉아서 평생을 지속해 온 슬픔의 중력을 거스르고, 고맙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끝 무렵에 와서야 나의 시집 <장미 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에 수록된 오월 정신을 위로하는 시를 읽어줄 기회가 왔다. 그의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를 비롯하여 참가자 대부분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과정에서 슬픔이 과거형으로 옷을 갈아입는 듯 했다. 시를 읽어주면서 나는 잠깐이나마 빈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위로하는 박선영 열사가 되볼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안아주었고 나도 그를 안아주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비루한 시로나마 광주 역사의 증인을 위로했으니, 시인의 삶을 살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다정한 언어로 슬픔에 공감해주었다. 이 소통의 시간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지막에 꼭 진행하게 되는데 치밀하게 계획된 치유의 시퀀스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사회자 또한 전문의며 동석자들은 종교인, 상담심리학과 학생, 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의 지난 주인공들,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가 삶의 비통함과 시린 무게감을 다 털어내진 못했을 수도 있다. 평생을 업고 살아온 딸에 대한 이 비장한 어부바가 단 한 번의 좌담회로 모두 날아갈 수는 없다. 다만 트라우마센터의 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는 점진적인 구조를 진행하는 듯하다. 삶의 총체적 과정에서 보내온 대상자들의 구조신호(mayday)를 지긋이 목도하면서 손끝부터 조금씩 아린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다. 손끝부터 한 마디씩 사람을 덥히다가 손을 잡아주고 결국 안아주는 것이다. 이번 강연이 오염자씨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듯 했다. 사회적 선의가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작동할 때, 도처에 널려있던 슬픔들이 아스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찬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아주 조금씩 몸에 물을 묻힌다. 슬픔 너머에서 기다리는 저 먼 광원(光源)을 향해 한 줍씩이나마 발을 적시는 시간이었다. 이제 먼 바다에서 만날 시간이다.

# 마민주

모담지기

## 매일매일이 모여서 만든 동네방네 여행일기 ‘우리 동네 신문사’ 서창향토문화마을 한바퀴

드넓게 펼쳐진 서창 들녘에는 해마다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만드리라는 모내기를 하고 나서 발산마을, 중천마을, 동하마을 등은 매년 7월 중순에 만드리 풍년제를 진행한다. 풍물놀이와 김매기를 재현하는 행위예술 등을 통해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해주며 풍년을 기원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서창동에서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이으며 마을의 화합을 도모한다.

농촌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동 마을. 그곳을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서창 향토문화마을’에서 세동 마을을 탐험하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단체명 놀이모점행  
프로그램명 우리 동네 신문사

‘우리 동네 신문사’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마을 어른들과, 자연과 더불어 하루, 이틀 기록을 통해 “작은 습관”을 만들고 예술이 일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아주 보잘것 없고 사소한 일이라고 상관없다. 마을 탐험 일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는 자기소개나 특별한 가족 소개, 30개의 네모 빈칸에 하루하루 기분의 색깔로 채우는 그림 달력 등 여러 방식으로 신문을 채워나간다. 매일매일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록들을 신문으로 발간한다. 마을 어른들에게 신문을 직접 배부하면서 아이들은 일상을 추억으로 만들고 어른들은 일상을 추억한다.

야은당과 열부유인김씨 행적비, 만귀정까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문화 유적지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을 탐험하고 곧 발간할 신문에 실을 글을 쓰고 있었다.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기사문이 아니더라도 시문이나 일기, 폴라로이드 사진과 그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원고지를 채워 나갔다.



만귀정  
열부유인김씨행적비



Q 송학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나요?

A 꼭 송학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마을이 세동 마을이고 저 밑에 동화 마을, 서창 마을이 있어요. 근처에 사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우리 동네 신문사 기획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가 작년에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으로, 아이들과 함께 ‘마을 모험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아이들이 마을 안에 있는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게임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놀았죠.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붙잡고 사는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컨셉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놀다 보니, 마을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농사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 마을 이발관을 하고 계신 어르신, 평상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을 뵈게 되면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을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각 집에 직접 배포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을 견학중인 아이들  
마을 골목







아은당에 누워 탐험 일지를 쓰기

**Q**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A** 처음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이들이 안 따라와줄 때도 있고 지금 날도 더우니까요. 그런데 저번에 재단 자문위원님이 너무 결과에 치중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보이는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과정에 좀 더 집중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부담이 없어졌죠. 여름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작 단계로 계획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소개하는 소개문이나 오늘과 같이 마을 문화유산을 견학하고 글을 쓴 것을 실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나 1호 소식지가 나올 것 같아요.



서창향토문화마을

**Q** 신문 제작을 하면 배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마을이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배부하려고 해요. 다 함께 마을을 돌면서 직접 나눠드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요. 주민 자치센터에는 조금 비치를 해놓을 거 같고요.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른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해야죠.

‘우리 동네 신문사’는 현장 취재부터, 기사 작성, 배부 등 일련의 과정 대부분이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진행된다.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주체가 되어 자연스럽게 일상에 문화예술이 녹아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착을 형성한다. 자신의 마을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아이들이 탐험하고, 글을 써 신문에 실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마을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체명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에드뮤직컴퍼니  
 프로그램명 창의예술학교-시소학교, 무비두밤 재즈학교 합동 교차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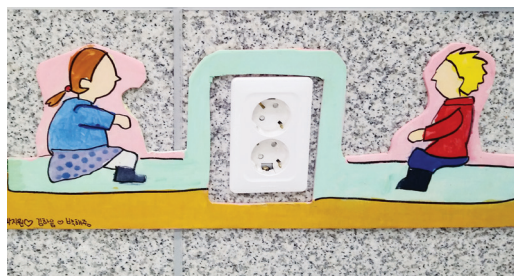
## 정 임 악

모담지기

# 똑딱똑딱 만드는 재즈선율, 목공과 음악으로 꾸미는 시간

지난 9월 중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학교에서  
 창의예술학교 통합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올 초 첫 뉴스레터의 원고에서 필자가  
 소개했던 창의예술학교는 초등, 중·고등, 청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듯 4개의  
 단체가 각 연령별 맞춤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통합수업에서는 시소학교의 청소년들과 에드뮤직컴퍼니  
 청년이 재즈음악으로 만났다.

지난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손에서  
 재탄생하는 물건 및 공간에 집중해, 청소년들이 자원을  
 생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현장탐구형학교’를  
 기획했던 시소학교의 참여자들은 그동안 시소센터 곳곳을  
 작은 손으로 똑딱똑딱 만든 목공작업으로 다채롭게 꾸며  
 놓았다.



게임기가 된 엘리베이터 버튼과 곳곳에 달은 아이들의 손길





직접 연주를 통해 재즈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애드뮤직컴퍼니의 아침 공연

대부분이 초등학교생인 시소의 참여자들은 직접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곱게 색칠하며 시소의 이곳저곳을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놓았는데, 오늘은 잠시 망치를 놓고 3층 음악실에 모여 재즈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합동수업을 열며 아침부터 멋진 공연으로, 참여자들이 평소 많이 들어봤지만 재즈음악인지 몰랐던 곡들을 통해 재즈에 대해서 알려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어색함을 느낀 참여자들은 목공작업 때와는 달리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표현했다.

그런 어색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본격적으로 '재즈' 맛보기 시간으로써, 시소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직접 가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시작됐다. 하얀 종이 위에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시소학교에서 경험한 목공시간을 떠올리며 빈 종이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이야기로 백지를 채워가는 참가자



아이들의 가사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애드뮤직컴퍼니와 목공 선생님들



그룹을 나눠 그 자리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바로 모두의 목소리를 합쳐 곡이 완성되었다.

어색해하던 것도 잠시 시소학교에서의 즐거운 경험들이 속속 생각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는 가득 메워졌고, 참여자들이 생각나던 단어들을 조합하여 재즈곡에 맞는 가사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 망치질, 시소센터, 오늘의 간식 등의 단어들이 애드뮤직컴퍼니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노래에 엮어졌고, 재즈를 배운 지 1시간 만에 다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 짧은 시간에도 가사를 만들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놀라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서로 도와가며 가사를 만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수업시간 내내 유독 부끄러움을 타서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자꾸 목공과 시소 선생님들 뒤로 숨어들던 참가자가 부끄러움을 던지고 당당히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다. 아직은 어리지만 목공시간에는 푹 부러지는 그녀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개사한 곡을 돌아가며 부르고 녹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밝게 웃는 아이들의 표정이 이 시간을 모두 설명해 준다.

그 자리에서 녹음된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작작’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던 아이들. 시소에서는 목공으로 창의예술학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날 함께 한 참여자들 중에는 연예인이 꿈이라 짧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컬 레슨을 받아볼 수 있어 신이 난 친구도 있었고, 연신 이곳저곳 자신이 꾸민 곳들을 알려주고 종이에 가장 많은 시소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적었던 친구도 있었다.

처음 경험한 재즈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신기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시소학교의 참여자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었다. 시소에 오지 않았다면, 창의예술학교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자기가 한 활동들에 자부심을 느끼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본다.

# 박상권

모담지기

## 몸짓으로 전하는 수화 춤

“문화예술 축제란 기획자, 공연자, 관객(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서 하나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무용공연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여기고 있어요.”

매주 주말이 되면, 연습실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인다. 그들의 표정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다음 공연을 위해 어떻게 연습할지 연구한다. 축제의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구성할 준비를 하는 이들은 광주 동호인 모임 “하카 와히네 (Haca Wahine)”다.



광주 지하철 예술 무대 공연

**단체명** 하카 와히네 광주 홀라걸즈(HACA Wahine Hula girls)  
**프로그램명** 하와이 수화댄스 홀라춤



광주지역 내 하와이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된 모임으로 2017년 하반기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7년 연말파티(mele kalikimaka hoike), 2018년 해운대 하와이안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지역내 동호인 팀이라고 소개한다.

하와이 전통춤으로 알고 있는 홀라(Hula)는 하와이의 노래(mele)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몸짓으로 전하는 수화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합으로 신체건강, 정서순화 및 긍정적인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TV프로그램 속에서만 보던 하와이의 전통춤은 되게 막막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빠져들었다. 하와이의 전통 멜로디를 따라 온 몸으로 선율을 읽는 듯한 몸짓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진정시켜주었다.

초청강사님께서 오시기 전 다같이 둘러앉아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어느 보통사람들과 같아보였으나, 강사님께서 들어오시기 몇 분 전부터 대형을 맞추면서 스스로 연습을 시작하였다. 확연히 눈빛이 달라지며, 지난주까지 배웠던 동작들을 하나 둘 맞추는 모습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와이 음악을 좋아하던 이분들은 처음에는 우쿨렐레 등 합주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문득 하와이의 음악에 매료되었고 듣는 즐거움을 뛰어넘어 보이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홀라 춤을 연구하면서 연습하였다고 한다. 춤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연습실 한쪽 벽면을 전면거울로 대체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나눌거리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빛고를 우쿨렐레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하와이 음악과 하와이 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문화예술과 축제라는 상관관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쩌면 둘은 하나의 단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문화예술이든 축제도 참여하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으니, 일상 속 접하지 않은 분야도 문화예술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 안의 구성원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서 활동한다. 하카와히네 팀 역시 매주 일요일 오후에 모여서 웃음꽃을 만발하며 다음 공연을 기약하며 수화를 전한다. 언뜻 보면 힘들어보일 수 있으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일지 모른다. 수업이 없는 주는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은 스트레스 해소 창구일지 모른다.



해운대 하와이안 페스티벌 공연



빛고를 우쿨렐레 페스티벌



하카와히네 연습 모습



우쿠렐레와 합주악기



# 평 화 학

모담지기

단체명 마음놀이터  
프로그램명 엄미꽃 마을예술학교

## 지난해 지역특성화 우수 평가 단체를 들여다보다

마음놀이터 김옥진 강사 인터뷰

봄의 태동과 함께 광주문화재단은 올 한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18년도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설명회'를 시행하였다. 지원 사업은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학교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체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이 중 지역 특성화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공간이나 문화자원 활용하는 지역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많은 단체들이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체험활동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손으로 하트를 그리는 엄마꽃 예술학교 참여자들, 위 가운데 검은색 옷 김옥진 강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지역 특성화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을까. 지난 2017년 지역 특성화문화예술교육의 우수 평가 단체인 엄마꽃 마을 예술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다음은 엄마꽃 마을 예술학교의 김옥진 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공감의 지점들을 연결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마음놀이터라는 단체입니다. 생긴 지는 오래되었어요. 저희 단체는 원래 개인적으로 미술치료, 통합예술교육을 위해서 시작했었고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기획하고 사업을 하시는 다른 분야 예술 강사 분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연구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강사들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단체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때 미술치료를 전공해서 저만의 치유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에 두는 걸로 변했어요. 그리고 경력 단절된 예술 강사들이 투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부터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었고, 대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경력 단절된 예술 강사들과 함께 같이 해오고 있고, 대상들도 연구의 목적으로하던 통합예술보다는 저희 연령에 맞는 중년여성들.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활기의 전환점을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특별한 예술은 예술가가 할 것이고, 내 삶의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Q** 특별히 교육 대상을 중년여성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A** 일단은 저희나이가 중년여성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겠죠. 문화예술교육이 밀바탕,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소통과 관계 맺기를 위해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의 지점들이 있어야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공감의 지점이 생기잖아요. 앞으로는 노인들에게 집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복장을 한 참여자들



각양각색의 복장을 몸빼 바지를 입고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



저희의 대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다른 분야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편하고 잘 아는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대상, 잘 아는 대상, 우리도 즐거울 수 있는 대상,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대상. 서로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죠. 교육단체와 참여자가 아니라 다같이요.

**Q** 프로그램이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A** 우선 기획 사업이라는 것에서부터 목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컸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데. 단체가 성장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일반적인 지역특성화사업을 해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하는 단체일수록 앞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획공모의 장점이 3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마침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매해 끌고 가기보다는 앞으로 3년, 장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공동체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문화예술학교와 마을학교라는 구분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생산하는 향유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배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들이 문화예술을 생산하는데 중점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배운 것을 다같이 향유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죠.

**Q**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히 우리가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 실제로 저희는 가르치지 않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찾도록 도와주고, 뭔가 배우고 싶게 하는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제가 가진 교육의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스스로 해봐야겠다는 것을 찾아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교육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는 것.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은 안되고요.

**Q** 선생님께서 교육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찾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그로 인해 변화가 나타났던 일들이 있나요?

**A** 우선 강사 선생님들도 기존에는 참여자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했던 일들이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팀원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일단은



다같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참여자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하다보면 아프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하게 되는데요. 아프다라는 것은 그전에 힘쓸려왔던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대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아프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자기 자신이 쉽게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픈 시기가 있기도 하구요. 새로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냥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주어진 대로만 갔다면 이제는 다른 결눈질을 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기존의 교육 안에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작업들이 잘 안되잖아요. 특히 우리 연령대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다양한 예술경험들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았죠. 특별히 뭐 미대를 가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자기표현을 하는 기회보다는 주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예술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저 예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고, 자기를 표현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구요. 대부분이 그래요.

Q 선생님도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셨나요?

A 제가 제일 수혜자죠. 예술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대로 일반적으로 살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나만 보고 살았던 것들을 결눈질하게 하는 여유를 갖게 하고 내 성장을 가장 많이 이루어냈구나하고 느끼게 하죠.

Q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로 가는 마중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살려 보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원래 예술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런데 예술교육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교육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것이든 예술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예요.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옷을 하나 사도 나에게 어울릴 수 있는 옷을 고르는 미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가구 하나에 티 테이블에 티 매트하나를 놓아도 그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이 사소한 것들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게 모두 예술이 아닐까합니다. 하지만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엄마꽃 마을 예술학교는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더듬고 어루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의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바로 위의 사진을 보면, 우리 엄마라는 단어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던 저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 건지. 바쁜 삶에 쫓겨 정작 놓치고 있던 우리들의 엄마들, 그 들의 삶을 나보다도 예술이 더 깊이 위로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김옥진 강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기획자는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공감의 지점을 찾고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또 참여자는 삶 속에서 자신과 예술 사이 공감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 무리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있는 것이 예술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예술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지도 모르겠다. 나 자신을 표현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느질을 하고 찻잔을 고르는 사소한 일들이 모두 내 삶을 예술로 채워가는 일이라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삶 곳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것은 우리가 올 한해 여러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의 활약상을 기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공 사 학

모담지기

## 뚝딱뚝딱 어린이 목수축제 탐방기

살면서 모두들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 중에 아직도 인상 깊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곰곰이 시리즈의 『나는 집을 지을  
거야』라는 책이 생각난다. 곰곰이라는 주인공이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상자, 쿠션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며  
씨름하던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 것이다.

어린 날의 나에게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다.

나만의 비밀공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시절의 나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불을 펼쳐 천막처럼 만들어보기도 하고, 큰 상자가



직접 글씨를 쓴 목수축제 플래카드

생기면 어떻게든 들어가 잘라보고, 눈이 오면 이글루를 만들었던 추억들. 이 모든 기억들이 아직까지 내게 아지트에 대한 판타지로 남아있다. 어린이 목수축제는 이런 친구들의 로망과 판타지를 200% 이해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망치와 톱을 쥐어주고, 3일 동안 자신들의 아지트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이들은 신양호, 박문종, 이재문, 박성완, 이재호, 정다운, 배수민 7명의 지역예술가에게 목공기술을 배우고 함께 아지트 공간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8월 18일 사전 만남을 통해 예술가와 어린이들이 한 팀이 되어 어떤 공간을 만들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8월 31일 ~ 9월 2일, 3일 간 예술가와 어린이들이 실제 공간을 건설하고 그 공간들을 연결하여 아지트 마을을 탄생시키게 된다. 캠프 2일째 저녁에는 완성된 공간에서 목수가든파티도 열린다.



본부 앞에 걸려있는 출석부

9월 1일 토요일 늦은 오후, 취재를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으로 향했다. 어제 한차례 비가 쏟아진 터라 날이 꽤 선선해졌다. 우리 어린이 목수들은 아지트를 얼마나 완성했을까? 그렇게 설레는 발걸음으로 찾아간 시립미술관의 어느 공터. 큰 규모의 건축물들이 멀리서부터 눈에 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쉬는 시간인지 친구들이 안전모를 벗고 주변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도 망치와 톱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친구들, 옹기종기 모여 떠들고 있는 친구들, 물놀이를 하는 친구들. 다양한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와 진행요원들은 필수적이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먼저 본부를 찾아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석부이다. 색깔별로 팀을 구분하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출석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기존의 딱딱한 종이 출석부와는



멀리서 본 목수축제의 장



다르게 목수축제의 컨셉을 잘 살린 나무 출석부가 참 인상 깊다. 출석부를 확인하니 팀별로 어떤 색을 가졌는지, 안전모의 색이 왜 다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팀별 아지트공간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 우리는 제일 높은 기지를 만들 거야

쉬는 시간이 한창인 가운데, 손에서 사포를 놓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한눈에 봐도 제일 높은 아지트, 조막만한 몸집으로 사다리를 오르고 쉴 새 없이 사포질을 한다. 작은 손,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입어도 험렁한 티가 한눈에 보아도 제일 어린 친구라는 걸 알려준다. 너무 열중하고 있는 터라 잔뜩 긴장한 채로 다가갔다. 친구는 사포질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등판에 크게 써진 김우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Q** 우진이는 사포질을 잘하네! 오늘 목수 축제 참여한 소감이 어때?

**A** 목수 체험을 해서 목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Q** 뭐가 제일 힘들었어?

**A** 톱질이란 무거운거 옮기는 거요.

**Q** 지금은 뭐하는 중이에요?

**A** 4층으로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힘들다면서도 손에서 사포를 놓지 않는 끈기가 기특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하기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저기 줄줄이 매달린 빈 강통이 보인다. 아이들이 열심히 씻어온 강통이 저렇게 변한 것이다. 움직일 때마다 신명나고 경쾌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마치 오늘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파란팀의 기지는 오늘 목수축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담당하고 있다. 바닥과 간판에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해 한층 멋을 더했다.

### 더위는 워터슬라이드로 잊어버리기!

목수 마을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있다. 워터파크를 개장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노란 안전모를 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다. 호스를 연결했는지 워터슬라이드에서는 실새없이 물이 흘러나왔다. 흘러나오는 물길을 가르고 아이들이 풀장에 풍덩 빠진다. 가까이 있다가는 물벼락을 맞기 십상이니, 다들 피하도록 하자. 슬라이드의 아래 공간에는 해먹도 있다. 물놀이에 지친 친구들이 쉬기에 딱 좋은 공간이다.

막 물놀이를 끝마치고 제 옷에 물기를 털고 있는 황선호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Q** 안녕? 너무 재밌어 보인다. 목수축제 참여해서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A** 친구들이랑 물싸움도 하고 뭘 만드는데 재미있어요.

**Q** 다음에도 목수축제 참여할 거야?

**A** 모르겠어요. 엄마가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Q** 왜?

**A** 이렇게 물 맞고 오면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웃음)



기지를 꾸미자!



어머니의 허락을 말아야한다며 웃는 선호 어린이는 웬지 다음 년도에도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본다면, 어머니도 당연히 허락하시지 않을까?

### 우리 함께 인디언이 되어볼까

조금 시선을 돌리면 또 하나의 새로운 아지트가 보인다. 목수축제에 귀여운 인디언 친구들이 떴다! 한눈에 보아도 여기는 아, 인디언들이 모여 살겠구나 했던 공간이다. 색색의 페인트를 칠하고 가랜드, 인디언 풍의 천막까지. 동화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인디언 집이 툭 튀어나왔다.

미끄럼틀과 천막, 가랜드, 1층 내부의 창문과 창틀(마치 음료 바를 연상시킨다)이 조화롭게 연결되며 경쾌한 느낌을 준다. 아이들은 페인트 붓을 들고 색을 칠하거나 무언가를 나르며 즐거워했다. 말 그대로 축제다, 축제. 진행 스태프와 참여자,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늘팀 친구가 에어소파를 옮기다 말고 함께 앉아보자 권유한다. 문화재단의 김세령 선생님이 누워보더니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에어소파의 촉감이 재밌기도 했다고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는 즐거운 웃음에 현장을 취재하던 나마저도 미소가 지어졌다.

### 2층 나무집,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여유롭게 해먹, 정원을 노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바로 초록팀의 기지이다. 곳곳에 걸린 가랜드가 발랄한 느낌을 준다. 또 여러 공간을 천으로 연결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 덕에 안락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앞쪽에는 함께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티 테이블의 느낌, 뒤쪽으로는 해먹이 여러 개 자리해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된 내부 공간이 궁금해졌다. 아쉽게도 성인에게는 조금 낮은 높이라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밖에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다. 해먹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친구, 앞 쪽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 각양각색의 모습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점차 완성되어가는 파란팀의 기지



워터 슬라이드의 매력에 흠뻑 빠진 친구들





하늘팀의 인디언 기지  
노랑팀의 기지  
초록팀의 아지트



초록팀 아이들



빨간팀의 미끄럼틀

마치 하나의 카페를 만든 것 같다. 지금 당장 개인 카페로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멋진 초록팀의 기지였다.

### 똑딱똑딱, 과학상자 처럼 만들어지는 기지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다른 기지에도 미끄럼틀이 있지만 빨간팀의 미끄럼틀이 특별한 점은 나름의 과학적 지식을 연결했다는 것이다. 나무, 볼트의 연결과 결합을 통해 보다 안전한 미끄럼틀을 만들고, 바퀴를 단 판자로 더 빠른 속도를 냈다. 판자에 달린 바퀴 때문에 내려올 때는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엄청난 속도다. 아마 모든 아지트가 완성되면, 마을에서 롤러코스터를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한참 미끄럼틀을 타려고 기다리는 가운데, 미끄럼틀 아래 서 있던 김아름 친구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다.

**Q** 안녕? 미끄럼틀이 멋지네! 목수축제 참여해서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A** 처음엔 무척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가 재밌어요.

**Q** 어떻게 제일 재미있었어?

**A** 망치질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Q** 힘든 점은 있었어?

**A** 망치 두드리다가 손을 찔렀던 게 아팠어요. 다른 건 힘들지 않았어요.

나무 판자를 조립하듯 엮어 만든 모양새가 인상 깊다. 매크립지는 않아도 꺾이는 직선들의 매력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 액티비티를 좋아한다면 여기로~!

주황팀의 친구들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1층에는 탁구대, 옆면에는 클라이밍, 미끄럼틀 등. 활동적인 요소들로 꽉 채워진 공간이 참 재미있다. 이 기지를 구상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나 많았던 모양이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공간에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들어찼으니 말이다.

아이들이 나무기둥을 엮은 공간으로 요리조리 매달려 올라간다. 초등학교 시절 놀이터에 꼭 하나씩은 있었던 정글짐을 보는 기분이다. 천막이 드리워진 2층의 해먹에서 쉬기도 하고, 1층 탁구장에서 운영강사님과 탁구를 치기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을이 완성되면, 주황팀의 기지는 복합체육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완성된 후에는 다른 친구들이 놀러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렇게 여섯 개 팀 각기의 매력을 살펴보았다. 팀별로 톡톡 튀는 개성이 완성된 마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축제의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나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인터뷰에 즐겁게 응해주어 기뻐다. 더욱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조금 더 덧붙여본다.

### 정다운·김해원 어린이

**Q** 안녕?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A** 그냥 블루베리 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젠 토론토분이에요.

**Q** 목수 축제는 어떤 것 같아?

**A** 만드는데 재미있어요.

**Q** 그럼 혹시 아쉬운 점도 있어?

- ①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② Q 어제 비가 왔는데, 참여하는데 힘들지는 않았어?  
 ① A 실내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비가 안와서 괜찮았어요.

#### 최은준 어린이

- ② Q 친구야, 안녕? 목수 축제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① A 네. 톱질이 제일 재미있어요. 톱이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② Q 쉬는 시간이라 친구들은 다 노는데, 힘들지 않아?  
 ① A 만드는 게 재밌어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 이현성 어린이

- ② Q 친구야, 안녕? 목수 축제 참여해서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① A 네.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서 재미있어요.  
 ② Q 어떻게 제일 재미있는데?  
 ① A 기지만들고 수영하는 거요. 친구들이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가는 게 좋아요.

#### 이현성 어린이

- ② Q 친구야, 안녕? 목수 축제 참여해서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① A 네.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서 재미있어요.  
 ② Q 어떻게 제일 재미있는데?  
 ① A 기지만들고 수영하는 거요. 친구들이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가는 게 좋아요.

인터뷰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먼저 말을 건네는 친구도  
 있었다. 자신감에 가득차서는 제게 물어보라고 한다.

#### 장윤 어린이

- ② Q 인터뷰 하고 싶었구나? 뭐가 그렇게 즐거워?  
 ① A 저는 톱질, 망치질하는 소리가 참 재밌어요. 저는  
 힘든 점은 없어요.  
 ② Q 그렇구나. 그럼 내년에도 참여할 거야?  
 ① A 음...내년에는 중학생이라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작년도에 참여했어요.  
 ② Q 그래? 그럼 작년에 비해 이번 년도는 어떤 것 같아?  
 ① A 이번 년도에는 만들 수 있는 규모도 커지고 재료도

다양해져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작년처럼 친구들과하고  
 같이 합숙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워요.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아이들은 어리다. 그래서  
 날카로운 톱과 무거운 망치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 과잉보호 가운데  
 아이들은 모험심과 자유로움을 잃고 울타리 안에 갇힌,  
 마치 순종적인 양처럼 자라온다. 그러나 막상 들판에  
 풀어진 아이들은 생각보다 주체적이고 용감하며,  
 다재다능하다.

일전에 어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학교와 학원을 외쳐대던 모습이 생각났다.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원은 어떤 공간일까? 분명한 것은  
 그 곳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 아이들은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내가 오늘 흘리는 땀 한  
 방울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목수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데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토텐화분을 만드는 정다운 김해원 어린이



주황팀의 재미있는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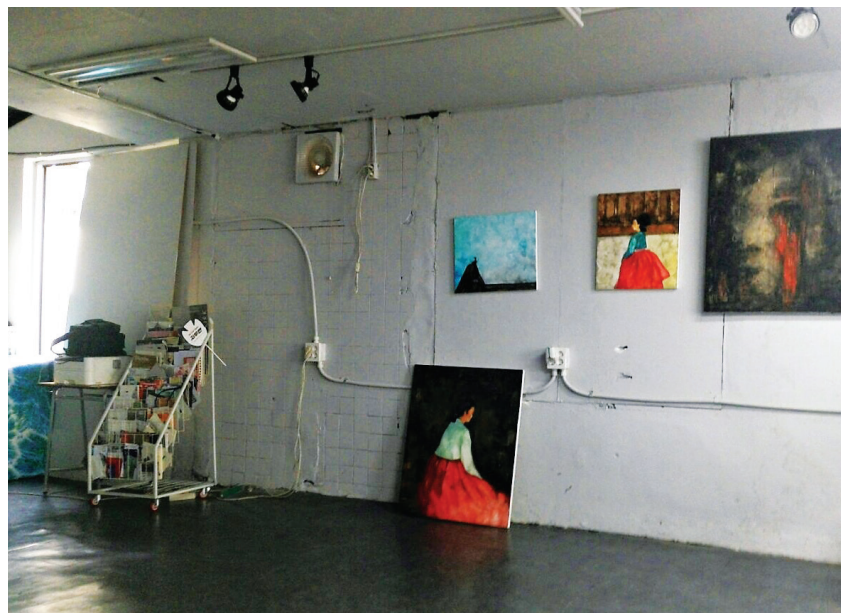
# 전 상 바람

모담지기

단체명 바람  
프로그램명 현대미술 관계 읽기

##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윤원화, 『1002번째 밤 :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읽기

대인동에 위치한 어딘가 예술가들만의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건물 외벽을 눈길을 따라 올라다본 후,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다. ‘바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곳에는 지난 전시의 마지막 여운을 간직한 작품들이 있었고, 이번 북클럽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미술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 혹 예술가라 부르고 싶은 이들이 이 앉아있었다.



‘바람’ 공간



지난 전시 작품들

### ‘바림’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술을 하기위한 대안공간으로, 갤러리나 미술관에 들어가지 못한 신인작가 작품이나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실험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문화재단 센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북클럽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현대미술 관계읽기>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책 읽고 서로의 생각을 토의하는 북클럽, 전시장 가게되었을 때 챙기는 팸플렛을 읽으면서 묘사를 분석 및 비평하는 ‘팸플렛 팝플렛’ 그리고 최근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슈토론’ 이 있습니다.

‘북클럽’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읽고싶었던 책 등을 참가자에게 신청을 받거나 혹은 따로 선정하여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전부를 읽기보다는 부분의 챕터를 선정하여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자가발전적인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바림, 김보경 큐레이터 -



### 예술과 일상의 경계, 그리고 미술의 본질에 대하여

‘바림’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색을 단계적으로 점점 얇게 하거나 점점 진하게 하는 그라데이션(gradation) 기법을 말한다. 한쪽으로 갈수록 색이 바랜 듯 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색채기법이다. 즉 말하자면 일종의 분절성을 파괴하는 경계를 무너뜨리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 ‘바림’에 대해 인상 깊었던 건 이번 2018 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상상된 경계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해 심오한 생각을 가지거나 혹은 각자의 마음속 잠재되어있을 것에 대해 토의하는 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았다.

### 제3장 제도가 유령이 될 때

이번 북클럽에 선정된 책은 ‘윤원화 저 <1002번째 밤 :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이었고, 챕터는 책 中 3장 ‘제도가 유령이 될 때’라는 파트였다.

파트를 읽은 다음 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조금 더 심오한 내용으로 분석하고 싶은 질문들을 서로에게 하기 시작했다.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제도가 유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 크게 예전의 미술과 현재의 미술 그것에 대한 향유의 공간인가에 관한 토의였다. 지금의 미술관이 순수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2018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실, 어떠한 정답은 있기가 어려울 듯하였다. 시대가 바뀐 만큼 그에 대한 변혁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거나 혹은, 신진미술가들이 설자리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심도 깊게 이해하고 싶은 작가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일면에서는 미술관의 목적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그렇다면 순수미술은 복합문화관의 역할로 탈바꿈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견이 주고받고 진행되었다.

어느 한 대답이 정답으로 귀결되지 않은 활발한 토의를 듣다보니 절로 분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필자는 미술가는 아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술관 등을 좋아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의 특유한 낯선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예술로 대변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고 그 안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 모여 있는 작가 분들 모두 열의에 찬 두 눈을 반짝이며 토의에 임하였다. 미술관의 정체성 그리고 만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합문화관이라면 어떻게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부터.

책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책을 읽고 활발한 토의를 이어간다.



자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그럼에도 이 미술가들이 흠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들 자신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었다. 미술관이 있어서 미술가가 존재하기보다는 미술가가 존재하여 미술관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다. 끊임없이 제도에 대해 숙고하고 보완하면서 퍼즐을 맞추는 임무를 주고자 하는 것 같았다.

### 바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술관, 미술가를 떠올리면 어떤 심상이 머릿속을 스칠까. 조금은 독특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잡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클럽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역시 확실한 자신만의 주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토의를 진행할 때 서로간의 의견을 분절시키는 것보다는 의견에 의견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듯 했다. 조금 더 궁금해 하는 표정이 어우러져 예술가의 장을 형성하였다. 끊임없는 그라데이션과 같이 토의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미술의 출구는 경계가 없을지 모른다. 질문을 통해 끝없는 아포리아를 상상하며.

# 선단비

모담지기

단체명 아트플랫폼 오르세  
프로그램명 어른동화 '오월장미'

## 이밥의 꽃, 오월의 어머니를 감싸 안다

이팝(이밥)나무엔 전설이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드릴 쌀밥을 지을 적, 간을 보기 위해 밥을 한 움큼 떠먹다 시어머니에게 발각되고 만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마는데 세월이 흐른 후 그 자리엔 쌀 모양의 하얀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진다. 가랑비가 제법 내리던 11일. 옛 구 도청 3층에서는 이 전설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어머니들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던 차였다.

오늘 모인 그들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모두 5.18을 겪어 온 '오월어머니들'로 그 당시 현장을 지켜왔거나 깊은 연관이 있던 분들이다. 저마다 그날에 대한 아픔을 지니고 삶을 영위해 온 그녀들. 이 아물지 못한 상처들을 보듬어 줄 순 없을까?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는 '아트플랫폼 오르세'는 어머니들을 위해 <어른동화 '오월장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팝나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종이를 직접 접어보고 있다.

### 접다 보면 뺨뿔어져본디?

#### 괜찮어, 괜찮어!

이번 수업은 이야기의 주인공, 이팝나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얇은 한지 두 장을 겹쳐 아코디언 형식으로 한 줄이 될 때까지 접는다. 다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접고 접힌 부분은 가위로 오려낸다. 분리된 종이들을 다시 포갠 후 스테이플러로 중심을 연결하고 꼬트머리를 손톱모양처럼 다듬어준다. 굳이 둥글게 만들지 않아도 좋다. 뽕족하든 직각이든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종이를 모두 활짝 펴면 이팝의 흰 쌀 꽃을 만날 수 있다.

완성된 꽃은 벽에 설치된 큰 나뭇가지에 부착하는데, 빈 공간을 전부 채우기 위해선 다량의 꽃을 만들어야 한다.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신다. 그러다 그만 종이가 서로 비뿔어진 채로 접혀졌는지 한 어머니가 “접다 보면 틀어져본디? 뺨뿔어져본디?”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가 한 수 거두신다. “괜찮어, 괜찮어. 그럴 수도 있제!”

### 빛나던 그날의 목격자들,

#### 빛바랜 오늘날의 기억들

투박한 손끝에서 꽃이 만개할 즈음, 이팝나무와 그녀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팝나무는 오월어머니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그녀들에게도 여러모로 의미가 담긴 시간이다.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슬픈 사연이란 공통분모를 지닌 둘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그리고 보니 둘은 닮은 구석도 있다. 하얀 솜뭉치 같은 꽃은 마치 오월의 그날 어머니들이 청년들에게 쥐어주던 흰 주먹밥과도 같다.

그렇다. 실은 우리 어머니들도 먼발치에서만 5.18을 바라보지 않았다. 필요한 물자를 기꺼이 마련해주고 계엄군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주기도 했다. 아울러 옆에서 거들어주던 아버지, 내 가족처럼 더 보태주려 하던 이웃들까지. 보이지 않은 손길들이 모여 광주 민주화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허나 오늘날의 우린 그들을 잘 모른다. 교과서에서나 짤막하게 짚고 넘어갈 뿐, 옆에서 함께 일궈내던 민주주의를 알지도 듣지도 못한 채 지나오고 있다. 이번엔 우리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매듭짓지 못한 그날을 이어줄 때가 아닐까?

이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트플랫폼 오르세’ 채유리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아트플랫폼 오르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문화예술기획과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반복되는 작업 속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어머니들



완성된 이팝나무의 모습. 겨울의 눈꽃처럼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차역이 미술관이 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생각의 전환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오르세는 문화가 소통하고 교차하는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자이자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어른동화 '오월장미'>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광주하면 오일팔이 떠오르고, 오일팔하면 심각하고 숙연해지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이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흥미롭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다가 '개인의 자전적 동화로 풀어낸 인간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를 전개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족들을 애도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입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화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Q** 대부분의 대상자가 여성이란 점이 인상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오르세 멤버들이 여성으로 이루어져있고 제가 평소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오월어머니집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 등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월어머니집 회원들도 여성으로서 감내하며 살아와야 했던 부분들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라는 기대효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도청복원입니다. 현재 2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구 도청 현장에서 농성을 하러 나오십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시위는 굉장히 난폭하고 투쟁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위의 형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시위의 형태도 비폭력 평화시위의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생적으로 차오르는 긍정적 내적 에너지를 통해 표정으로 몸짓으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예술로서 표현하려고도 합니다. 구도청 내벽과 외면에 어머니들이 직접 접은 핑크색 장미를 공공미술로 설치하여 이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핑크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색채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일부러 핑크색 티를 맞춰서 입고 갑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접는 장미꽃도 핑크입니다. 핑크색 장미를 접으면서 두뇌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남편과 자녀들이 민중항쟁을 위해 투쟁한 구 도청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날에는 어머니들이 대신하여 투쟁하며 강인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는 치료자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Q** ‘오월장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오월어머니집 회원 분들이 저희 교육을 너무 좋아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를 북돋아주며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나비의 날개 짓은 부드럽다.

###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잔혹 사에 내 가족 내 이웃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지켜 볼 수밖에 없던 오월의 어머니들. 오늘날엔 이념의 갈등에 휩쓸려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다. 가슴 속 상처는 아직 아물었다고 확답할 수 없는데 야속한 시간은 사건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허나 그녀들도 더 이상 그날의 목격자로 남지 않으려 한다. 끝나지 않은 5.18을 바로잡기 위해 매주 구 도청 앞에서 도청복원을 외치고 있다. 과거에 아버지, 아들이 시위에 나섰던 일을 어머니가 도맡아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아직도 그날만 떠올리면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 한 편 아려오지만 여성의 부드러운 힘, 그리고 강한 힘으로 광주의 오월을 다시 써보려 한다.

5.18은 지났지만 민주주의는 영원하다. 하지만 그들을 잇는다면 앞으로의 우리도 위태로울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그날의 광주, 지금의 광주를 지켜 온 어머니들을 기억해주길. 그녀들에게도 이밥의 꽃처럼 그날의 봄이 만개하도록 감싸 안아주길.



도청 복원을 지지하는 플랜카드. 옛 도청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마민주

모담지기

행사명 2018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문화예술 속의 축제, 축제 속의 나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온앤오프 무용단>

광주가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한 날개는 광주시가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다.  
개막식 퍼포먼스 '비상'을 공연하는 행위 예술가 서승아는  
광주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체험부스





프린지 페스티벌의 거리 공연

오늘날 다양한 축제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축제는 단조로운 현대 사회 속의 현대인들에게 크고 작은 해방감을 가져다주며, 고단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쌓여온 스트레스나 욕망을 축제를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새로운 에너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력소가 된다.

이러한 축제에서 드러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축제가 놀이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놀이의 정신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조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축제 콘텐츠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축제 속의 문화예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앞서 말했듯 축제 자체에 문화예술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구분 짓기 보다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속의 나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문화예술 속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2018년 4월 7일, 금남로 거리 일대와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린다. 더 나은 세상을 그려보는 일 '상상'과 그 꿈을 삶으로 바꾸는 일

'비상'이 함께 이루어져 우리가 꿈꾸는 시대와 당신이 꿈꾸는 삶을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먼저 실현한다. 개막식은 프린지 페스티벌의 프리뷰 쇼로 앞으로 진행될 대표 공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연 예술가들의 상상이 비상하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셈이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작품성 있는 작품을 현장 마켓을 통해 유통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30여 개에 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넘버블, 마임, 무용, 성악, 댄스 등 시민예술가와 전문예술가가 거리공연을 하면서 예술잔치를 이룬다. 거리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역시 관객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거리 공연으로는 '소심한 성격' 콤플렉스를 공연으로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텔링을 가진 공염팀 MArt의 <MArt Show> 클라운 퍼포먼스, 주인공 바가와 본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룬 공연팀 극단 즐겨찾기의 <바가앤본드> 마임, 상사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는 신입사원을 보여주며 사회세태를 고발하는 공연팀 김종환의 <퇴사학교> 서커스 드라마, 여태까지 보아온 친절한 광대가 아닌 불만 많고 툴툴거리며 관객을 괴롭히는 광대를 보여주는 공연팀 김찬수 마임컴퍼니의 <블랙클라운> 마임, 전쟁으로



무등산을 등에 지고 온 몸으로 뿜어내는 예술은 강력한 주목성과 호소력을 지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텔링을 가진 공연팀 친구네옥상의 <황금영혼> 이동형 거리극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우리는 <몽환>을 공연한 온앤오프 무용단을 만나볼 수 있었다. 온앤오프 무용단은 2001년 행위 예술가 한창호와 김은정이 창단한 무용단이다. 그들은 온앤오프 무용단의 공동 대표로서, 안무가와 무용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을 지향하며, 삶의 진실과 진정성을 찾아 탐구하고 실천하는 무용단이다. 그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현대무용은 난해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문화콘텐츠라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공연 <몽환>은 어땠을까. <몽환>은 현재를 살아가는 두 연인이 사랑과 자유를 욕망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행위예술로서 보여준다. 그들은 망망대해를 부유하고, 그 여행을 통해 희로애락의 여정을 동양적이며 시(詩)적인 드라마로 이끌고, 춤으로 녹여낸다. 공연

<몽환>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얻는다는 의미를 깨닫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랑의 되찾음을 연꽃 같은 몽환으로 관객에게 스며들 것이다. 결국, 그들의 공연은 오로지 관객 몫으로 비워진 무수히 많은 공간과 텍스트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을 끝내고 바쁘게 준비하는 그들을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Q** 두 분은 부부이신가요?

**A** 네. (웃음) 맞습니다.

**Q** <몽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2001년, 저희가 처음 만나고 다양한 공연을 짜면서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생기면서 <몽환>에 대해 연출하고 직접 무용을 선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Q** 프로그램에서 희로애락이 느껴졌는데 제가 느낀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두 연인이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화해하기도 하고, 서로 기쁘게 웃기도 하지만 또 다투며 화를 내고 등을 돌릴 수도 있죠. 사랑이 행복과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질투, 화, 짜증 같이 많은 감정이 뒤섞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희로애락들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느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네요.

**Q** ‘문화 예술 속에서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A** 네. 생각하고 늘 느끼죠. 저는 문화 예술과 저를 따로 구분 짓지 않아요. 문화나 예술이나 나나 그 안에 속해있는 거죠. 문화예술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삶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예술 문화 속에서 저는 문화 예술인이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일반인이자 창작인으로서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앤오프 무용단의 한창호와 김은정

<몽환>을 공연한 행위예술가 온앤오프 무용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축제와 문화예술에 대해 그들은 그 자체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속의 나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 나를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축제를 통해 유희를 즐기는 내 삶 자체가 문화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주자면 축제를 그냥 가서 즐기고 오는 것 보다는 사전에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보다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제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 임유 모담지기

행사명 2018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

## 광주의 정신이 깃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극 축제

아침에 일어나니 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 밖에 때 아니게 훑날리는 눈발에 가족들 모두 놀라는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이틀 전까지는 봄답지 않은 더위에 다들 옷옷을 벗어던졌으니 더욱 그렇다. 겨울을 겨우 이겨내고 푸릇한 새싹과 색색의 화사한 꽃을 보여주던 봄이 갑자기 정체성을 잃고 겨울로 시간을 되돌려버린 느낌이었다.

훑날리는 눈에 낭만을 느끼는 것도 잠시, 추운 날씨에 오늘 어찌 거리로 나서나 걱정이 앞섰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너른 광장과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혹시 추위와 강풍에 행사가 취소되면 어쩌나 별 걱정이 다 들었다. 그래도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날씨가, 상황이 어떠한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섰던 그 거리로.



프리뷰쇼에서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가 관객의 도움으로 탈출마술을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을 찾은 시민들



거리 곳곳에 마련된 무대, 관객과 호흡을 같이한 '매직 서커스' 조성욱의 무대



일단 프린지 페스티벌하면 한 번도 가본적은 없지만 영국 에든버러의 프린지 페스티벌이 떠올랐다.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거리공연의 축제라는 어렴풋한 이미지이다. 과연 광주의 프린지페스티벌은 어떠할까? 부끄러움이 많은 나는 이 거리극이라는 것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먼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정형균 총감독을 만나 질문을 던졌다.

**Q** 도대체 거리극은 어떻게 즐겨야 하나요?

**A**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라든가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서로 소통하는 프린지페스티벌의 성격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면 됩니다!

총감독의 말처럼 이미 많은 시민들이 거리극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다. 갑자기 공연무대로 불려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가발을 쓰고 발레 튜튜를 입고 함께 춤췄고, 쇠사슬을 성심성의껏 묶으며 탈출마술을 도왔다. 객석의 관객들은 공연자의 움직임에 웃고 박수치며 큰 호응으로 거리극을 즐기고 있었다.

총 18개 팀의 맛보기 무대인 프리뷰쇼를 지켜보다가 추위도 떨칠 겸 몸을 움직여 518민주광장 방향으로

향했다. 금남로 거리에 비해 한산한 느낌이었지만 ‘매직 서커스’의 공연자는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바라보다 그의 공연이 끝나고 분수대로 향하니 분수대 주변에는 미술을 중심으로 체험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보니 프린지의 포스터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프린지 키즈 작가를 찾는 코너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장을 둘러보고 다시 금남로로 발길을 돌렸다. 미술을 중심으로 조용히 체험이 진행되었던 광장과 달리 금남로 거리의 체험은 공예를 비롯해 평소에 입기 힘든 복장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과 먹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화재진압체험 등 활동적인 요소들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광주엄마가달린다’였다. 어머니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주먹밥의 고소한 참기름냄새에서 허기와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렇다. 어쩔 수 없이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에서 행사가 진행되면 5월의 그날이 떠오른다. 그것이 이 거리가 가진 정체성이다. 게다가 이 글은 5월에 뉴스레터의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러니 더더욱 프린지페스티벌을 바라보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5월의 그 거리가 생각났다.



소형 석고상을 채색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폭력과 송고함이 뒤섞였던 거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왜 그 거리에서 거리극 축제를 하게 되었을까? 폭력과 송고함이 뒤섞였던 그 거리,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했던 그 거리에서 만나는 거리극. 개인적으로 그 답은 시민들이 함께 한 거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거리에 나와 억압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의지를 표현했던 그때처럼 우리가 거리로 나와 거리 곳곳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즐거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에 말이다.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화된 세상에 대한 평범하고 당연했던 상상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듯, 프린지페스티벌은 이번 주제인 ‘비범한 상상’에 어울리는 멋진 축제로 매주 토요일 광주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길 바라면서 총감독에게 상투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다.

**Q** 5월에는 어떤 행사가 이뤄지나요?

**A**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외, 5월 12일, 19일, 26일은 ‘찾아가는 프린지’를 통해 더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더 알리고 더 가까이에서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광주를 찾아, 광주의 정신이 깃든 그 거리에서 프린지페스티벌과 그리고 광주의 5월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모두에게 바라면서, 그리고 그 때는 5월답게 화창한 날씨로 프린지를 찾은 시민들을 맞아주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환한 미소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을 맞이한 정형균 총감독

# 문화산업에 날개를 날다! 문화예술축제!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로 비춰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방향

2018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올림

## 마민주

모담지기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는 활동으로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문화의 개념과 이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각국에서 문화산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영국에서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미국에서는 정보산업(information industry), 일본에는 오락산업(entertainment industry) 또는 콘텐츠산업이라고 지칭하고, 프랑스·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문화 정체성 강조하여 여전히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화산업에 대한 관점과 그 용어는 다양하지만, 이들 나라와 여러 정의에서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1</sup>

문화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축제의 효과는 자명하다. 그 중, 오늘날의 지역문화예술축제는 지역문화를 외부에 소개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지역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등 사회 문화적인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또,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축제는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인간이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평소 억압되었던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준다. 이는 인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경직된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지역 간,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의식·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교육적 효과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축제가 유흥적 속성을 지닐 때, 놀이의 정신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조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축제 콘텐츠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sup>1</sup> 김빛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마케팅 연구 : 2008 고양호수예술축제의 마케팅전략을 사례로」, 서울시립대학교, 2010



문화예술축제의 대표적인 예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Edinburgh) 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문화예술축제로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황폐해진 유럽의 문화 부흥을 이끌기 위해 시작되었다. 축제는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로 성장하면서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수많은 공연팀들과 관객들이 몰려온다. 특히, 본 축제보다 먼저 열리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본 축제에 초청 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자생적으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시작은 초라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 축제보다 더 많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본 축제와 달리 자유 참가 형식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해마다 수백 개의 공연 팀들이 참여하여 수천 건이 넘는 공연이 행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보 축제와 달리 참가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불문하고, 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프린지 페스티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태동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자발적인 참가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프린지 페스티벌은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광복)이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국악관현악곡뿐만 아니라 판소리, 타악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면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도 가까운 예가 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광주의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문화중심도시 위상을 정립하여 문화도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매주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시작된 지 3년째로 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특히 올해 5.18 민주광장 근처와 동명동 카페거리, 구시청 사거리, 대인 야시장,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빚고을 시민 문화관, 남광주 시장까지 장소를 확대해 ‘찾아가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다양한 장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간의 재구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공연예술 분야에서 관객의 양극화 등과 같은 이유로 소외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객들은 크고 화려한 축제나 대형 기획사에서 주관하는 공연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진 예술가의 공연이나 작고 홍보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점차 고립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산업의 인프라 확충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은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광주만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드러내면서도 일반 대중에게 차별 없이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70년 역사를 가진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과 달리 이제 3년이 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재미와 감동의 깊이는 물론 같을 수가 없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과 달리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예술가들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축제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뿜내 도시에 활력을 일으키고 생명력을 불어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광주문화재단 블로그

# 마민주

모담지기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 요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탄생한다. 삶의 기술 워크숍 ‘삶을 위한 음식’

요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한마디와 함께한다. “먼저, 건배!”  
- 맛보다 이야기 p.78 -

음식은 예술이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려고 만든 음식이 아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만든 음식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은 한 마디로 어지럽다. 불균형한 영양소는 물론이요,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다. 그저 꼬르륵 소리를 없애려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어 없애기 바쁘다. 그러나 음식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아선 안 된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만들고 즐기는 과정이 지친 삶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음식과 예술의 조화는 그야말로



모두의 힘을 합쳐서 완성한 지중해식 비스트로 샐러드



프리뷰쇼에서 '크레이지'

삶에 신선한 자극과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18년 3월 11일, 삶의 기술 워크숍의 첫걸음인 '삶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야호 센터로 향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토요일 오전부터 분주했다. 이곳 조리실에서는 '삶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 준비가 한창이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앞치마를 입자 수업이 시작하였다. 처음은 '음식으로 관계 맺기' 강의로 시작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짧은 강의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요리 실습에 들어갔다. 오늘 만들 요리는 '지중해식 비스트로 샐러드'였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다.

#### 지중해식 비스트로 샐러드 조리 방법

먼저 주재료인 채소를 씻는다. 상추, 양파, 가지, 느타리버섯, 부추, 브로콜리, 치커리, 토마토 등 재료는 다양하다. 잎채소는 깨끗이 씻고 가지, 청경채, 느타리버섯과 양파는 씻은 후 약한 불에 함께 볶아 준다. 이때 샐러드의 핵심은 씻고 난 다음에 있다. 깨끗이 씻었다면 그만큼 탈탈 털어 채소의 물기를 잘 건져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눅눅한 샐러드를 먹게 될 것이다. 달걀을 풀고 살짝 볶은 부추 위에 올려 부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든다. 토마토 역시 소금과 후추를 이용해 볶는다. 토마토는 단맛, 신맛은 물론 짭짤한 감칠맛까지 갖췄으니, 샐러드엔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준비는 끝났다. 이제 소스를 만들 차례다. 식초, 올리브유, 설탕과 간장을 1:1:1:2 비율로 넣고 오리엔탈 소스와 다진 파인애플, 청양고추를 취향껏 넣는다. 고소함을 배로 하기 위해 깨를 넣는데, 깨를 넣을 땐 손으로 으깨서 넣는다. 올리브유를 넣을 땐 조금씩 휘저으면서 넣어야 한다.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플레이팅 단계이다. 먼저 따뜻한 재료들을 먼저 놓는다. 그리고 소스를 원하는 만큼 올리고 그 위에 차가운 재료를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스를 올린다. 드레싱의 양이 많아질수록 삼투압 때문에 채소의 숨이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올려야 한다. 비스트로 샐러드가 완성됐다. 아주 간단하다!

Q '삶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 기획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음식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에너지 자원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의식주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식'이라는 것은 뭘까 생각했죠. 요즘에는 음식이 실용주의적으로만 접근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몸에 좋으니 먹어야해”와 같이 말이죠. 저희는 야호센터와 음식의 교집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이콥 셰프와 학생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본다.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생애 열 가지의 조리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삶이 참 풍요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야호센터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요청하여 배우면서 ‘삶의 기술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협의 하에 ‘음식’이라는 주제로 스타트를 끊고, 센터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들과 함께 평상시에 접하지 않는 요리를 주제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이콥 대표를 섭외해서 지중해식 비스트로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음식이 완성됐다고 끝이 아니다. ‘야호 레스토랑’의 진가는 함께 즐기는 것이다.

Q 차린 음식을 바로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 있네요.

A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 기술을 배우거나 배워서 적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육류가 들어가지



않고 채소만을 이용해서 조리했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조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의도 하지 않았지만 실수에 의해 소스의 양이 많아졌어요. 이것으로 국수나 밥을 말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응용을 경험케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등 여러 의견과 칭찬이 오갔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조리실 옆에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용도인가요?

**A** 세종시에서 목재와 관련해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대부분 전시회에서는 끝나면 철거하고 버리잖아요. 제 지인이 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길래 그 전시회가 끝나고 나무를 달라 요청했어요. 목재를 가져와서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작업을 한 뒤 제조과정을 거쳐 3층에 있는 책꽂이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목재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구나 액자를 만드는데 활용한 거죠.

**Q**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문화예술이 사회를 바꾼다. 창조력 없이 진보 없다.’ 광산구 교육정책팀에서는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누어 사업지원을 진행해요. 이 세 가지 명제가 우리 야호센터의 철학인 거죠. 문화 예술이 사회를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해, ‘예술’을 주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예술은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존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오브제(object)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 것 즉 결과, 가시적인 것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화 예술 교육은 스피릿(spirit)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술은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답은 YES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 예술가이다.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찾고, 좀 더 나은 방으로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책을 뒤지는 것 또한 전부 예술이 될 수 있다. 모두 미적 만족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예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것이다. 삶의 기술 워크숍 ‘삶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은 우리는 모두 예술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오늘, 나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자. 준비하면서 행복해하자. 당신은 예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버려진 목재들을 이용하여 만든 책꽂이와 책상

# 선단비

모담지기

단체명 놀이터 아를  
프로그램명 광주 건문록 - 공간편 <팝아트체험>

##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은 완성 된다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용어가 있다. 디지털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의 심신 치유를 위해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처방 요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마저도 진부해진 듯 현 시대는 인공지능(AI) 시대로 불리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도 우리 일상에 익숙해지다 못해 그 속을 파고든 지 오래다. 덕분에 현대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목례를 하는 듯 푹 숙이고 작은 화면만 바라본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주변의 흘러가는 일상, 사시사철의 자연 광경들은



모두의 힘을 합쳐서 완성한 지중해식 비스트로 샐러드



프리뷰쇼에서 '크레이지'



그저 스쳐지나갈 뿐이다. 가정에서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가까운 존재'와 함께 지내오지만 정작 가족의 눈보다 스크린 안의 타인을 보는 날이 비일비재하다.

여기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고 한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이루길 원한다는 '놀이터아름'은 7~8가족을 모집하여 7개월간 광주를 탐방하고 뜻 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을 계획해왔다. 특히 이번의 경우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한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느껴지는 5월 말의 어느 날, 현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 광주 송정에 위치한 광산문화예술회관 2층 광산구립합창단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팝아트 체험. 가족들이 모둠별로 양반 다리를 한 채 오리엔테이션을 경청하고 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인지 추억을 쌓기 위해 모인 이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가득차보였다.

재료를 배부 받은 팀은 캔버스 위에 먹지를 가지런히 붙이고 해당 가족사진을 그 위에 덮은 채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프로그램 측에서 미리 사진을 선으로

변형해왔기 때문에 스케치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 가족들을 하나 둘 선으로 그려내는 모습. 과연 정성을 들인 만큼 선이 잘 따져 있을까 내심 궁금해진다. 스케치가 끝나면 먹지와 그림을 제거하고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을 확인한 후에 선이 따지지 않았거나 흐릿한 부분을 다시 이어준다.

이제 본격적인 채색에 앞서 재료들을 자리에 세팅한다. 물은 컵의 절반 안 되게 담아오고 일회용 접시에 아크릴 물감을 적당 양으로 덜어온다. 피부와 머리카락, 옷가지들은 기존에 고정된 색상들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배치하는 게 포인트다. 스케치만 그려진 흰색 도화지에 어떤 색이 어울릴지, 자연스레 색상의 조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색을 이리저리 칠하다 외곽선을 탈출한 그림을 발견했다.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니 색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군데군데 컬러가 다른 그림, 물감이 꼼꼼하게 채워지지 않고 빈 곳이 남게 칠해진 캔버스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들마저 얼마나 개성 있는가! 단색으로 깔끔하게 떨어진 팝아트 기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마치 정해진 틀에 맞춰지지 않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뿜내고 있다. 둥근 선, 직선, 뾰족뾰족한 선 등등. 선과 선은 겹겹이 교차되어 면이 되었고 또다시 면과 면은 서로 어울려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된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칠하고 엄마는 아이의 함박웃음을 그린다. 붓 끝을 통해 만들어가는 그림들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채색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밖에 비치된 드라이기로 물감을 바삭 말려준다. 캔버스에 남은 물기가 없는 지 확인되면 유성매직펜으로 이목구비를 탄다. (테두리 작업이 까다로워 손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새기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면 프로그램 체험은 종료된다.

**Q** ‘놀이터 아름’,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놀이터 아름의 아름은 예술의 Art와 ‘사람을 알음알음 알아간다’는 뜻의 알음을 결합한 의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광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모인 예술 단체입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작년에는 ‘문화체험학습동행 광주견문록-인물편’을 통해 우리 고장 광주 지역의 예술가들을 알아보고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시인, 음악인, 미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가족들이 알고, 미술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광주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몰랐던 광주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의 인물편에 이어 공간편의 구성으로 광주지역에 있는 공간을 가족들과 함께 알아가고 탐방합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A** 저희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족들끼리 각자의 취향과 생각들을 공유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먼저, 광주지역의 오래된 장소, 광주만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탐방을 갑니다. 가족들과 탐방을 통해 우리가족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드로잉북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탐방을 다녀오면 가족별로 개성 넘치는 문화지도를 제작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고장에 오래 살았지만 몰랐던 광주의 역사에 대해 가족들이 알고, 탐방과 활동을 통해 가족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놀이터 아름’의 행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현 시대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이에 맞춰 저희 단체에서도 초고령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커뮤니티아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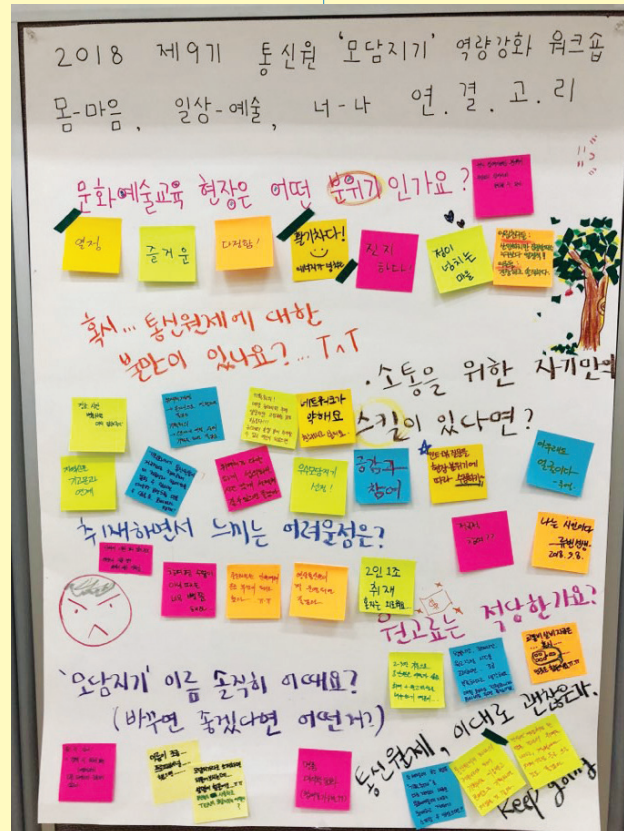


색을 칠하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떠올랐다. 과연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질까, 아니면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함께 마주할 수 있다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낄까? 디지털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스마트화된 세상에 익숙하지만, 아날로그를 겪는 부모님은 불통(不通)의 시대로 변하는 세상에 서운해 할 새도 없이 부랴부랴 적응해야 했다. 씁쓸한 그 마음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 바로 옆에서 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오래 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다고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오늘날만큼은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니까 말이다!



# 2018 9기 통신원 몸-마음, 일상-예술,



## 너-나 '연결고리' 역량강화 워크숍

## 너와 나의 연결고리 : 통신원 ‘모담지기’ 네트워킹 파티

### ☞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어떤 분위기 인가요?

열정, 즐거운, 다정함 활기차다, 진지하다, 정이 넘치는  
마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분위기(부담없이 참여자와  
동화될 수 있음)  
어린 친구들\_ 산만하지만 집중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  
어른들\_ 진중하고 솔직하다

### ☞ 소통을 위한 자기만의 스킬이 있다면?

공감과 참여  
인터뷰 질문을 현장 분위기에 따라 수정하기  
적극적 참여  
아무래도 얼굴이다.

### ☞ 통신원제에 대한 불만이 있나요?

장소, 시간 변동사항 미리 알려주기  
기획회의에서 실제 기획을 하면 좋겠음. 지금과 같이  
취재처만 선정하는 건 온라인 회의로도 충분  
친해지고 싶은데 네트워크가 약해요.  
회의비를 지급하면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듯  
지역신문 기고문과 연계  
취재처가 다양하게 섭외돼서 시간 맞게 선택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뉴스레터 주제 담당자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콘셉에 대해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 ☞ 취재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단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참여형 수업이 아닐 때는 너무 뻔쭙함  
중도하차한 인원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었다.  
영상통신원이 잘 운영되면 좋겠다.

### ☞ 원고료는 적당한가요?

A4 2-3장 기준 8만원 (취재+원고작성 두 가지를  
하기때문!)  
왕복시간, 취재시간, 원고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매월 화의도 진행하니 회의비도  
주면 좋겠어요.  
교통비 실비지급은 안되나요? 먼 곳은 힘들어요.

### ☞ ‘모담지기’ 이름 솔직히 어때요?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검색하면 희소성 있는 네이밍이라 좋다  
이름이 프로페셔널 했으면 좋겠다.  
모담지기라고 소개하면 되물어보시는데, 설명하기 힘들다.  
딱 들어오는 이름은 아닌 것 같다.

### ☞ 통신원제, 이대로 괜찮을까?

2-3달에 한번은 ‘기획취재’로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을  
취재하고 소개하기  
통신원끼리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기획비를 지급받고  
콘텐츠를 기획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안식년처럼 격월 취재, 격월마다 자체 칼럼 등을 쓰기  
2인 1조 취재하면 시너지도 생기고 재밌을 것 같다.  
Keep going!

# 연결 NETWORK

140

---



# Enjoyable ◦ 즐길 수 있는

153

통신원 사용설명서  
인싸(Insider)들의 인사이트(Insight)  
굿바이 모담지기  
통신원 소감  
2018 뉴스레터 주제목록

# 통신원 사용설명서

## HEAD



**금발** 미친 존재감 뽐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금빛의 머리카락으로 나에게 이목집중



**머리** 취재시간, 취재 처까지 효율적인 시간과 동선을 전략적으로 세워라.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 HEAD



**눈** 담당자와 참여자들과 짧은 시간 안에 라포형성을 위한 부드러운 눈빛 '내게 진실을 말해줘~'



**코** 간식시간을 빨리 알아챌 수 있는 후각. 간식시간은 담소로 위장한 취재의 연장선이라고!



**입** 인터뷰를 하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묻자.

## HEART



**가슴** 가슴은 뜨겁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되어 함께 문화예술의 향유의 가치를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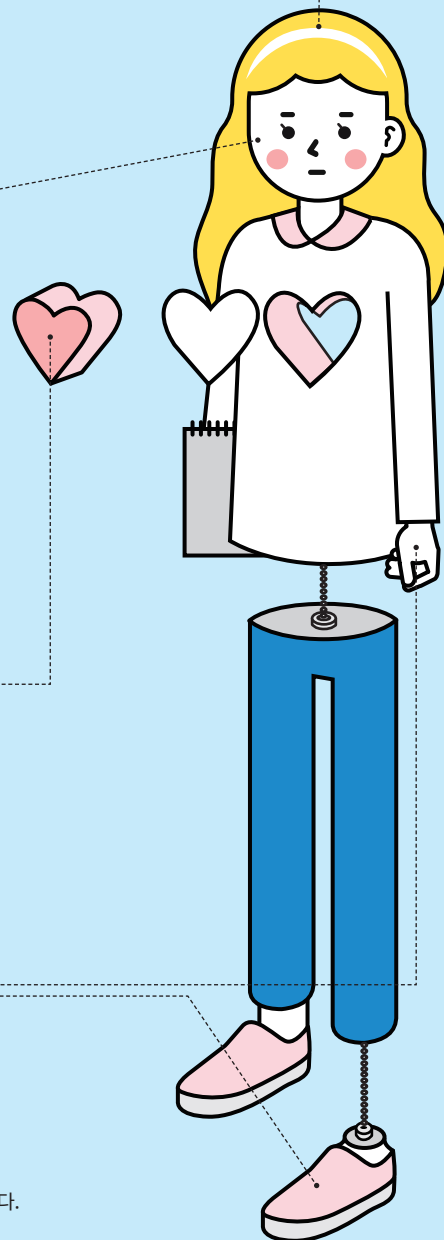
## FEET & HANDS



**손** 미리 인터뷰할 사항이 있다면 인터뷰지를 정리해오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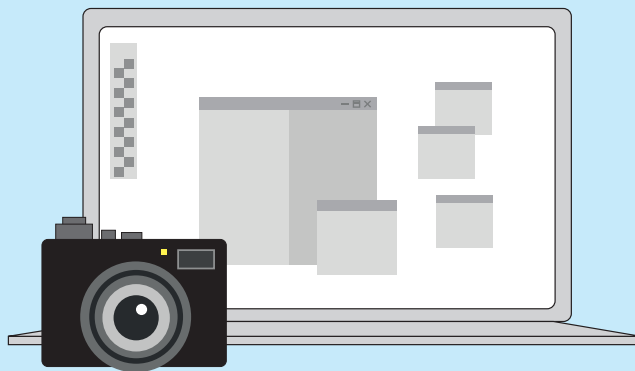


**발** 언덕을 오르고, 골목길을 걷고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을 신자. 문화예술교육을 가는 길, 그곳엔 나의 청춘도 담겨있다.



## DSLR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면 기사의 퀄리티가 한층 더 업



## 노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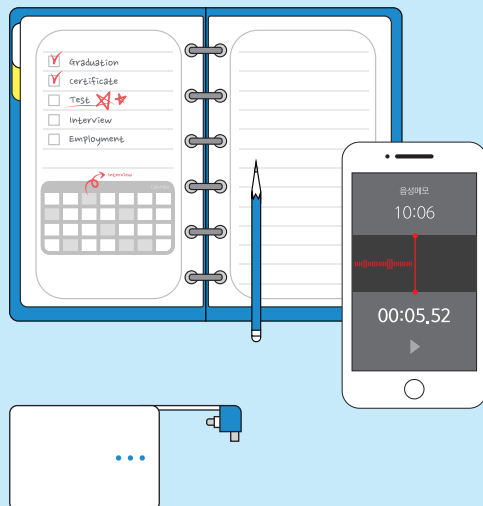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기사를 쓰며 마치 기자가 된  
기분을 느껴보자

## 아메리카노

글을 쓸 때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와 함께 기분을 업 시켜보자.  
훨씬 더 즐겁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추천메뉴: 스타\*스:  
토피넛라떼)



Enjoyable · 즐길 수 있는 ——— 통신문 사용설명서



## 다이어리

놓치지 않고 전부 받아 적겠어. 통신문과 참여자를  
바다처럼 넓게 이어주는 울트라 마린 컬러

## 핸드폰

방문 전 담당자님과 연락하여 상호간 예의를  
지키자. 지도 어플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 다시  
한번 체크체크! 인터뷰를 하며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녹음기능을 이용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 보조배터리

사진 찍다 배터리가 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방 속에 쏙

# 인싸<sup>Insider</sup>들의 인싸이트<sup>Insight</sup>

마감을 앞두고 ‘글님’이  
영접하지 않아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감이 메말라버린 자들을  
위해 통신원들의 인싸(이트)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올림



## 마민주

### #검색창

기사가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분노의 검색이죠. 제가 자주 보는 웹페이지를 소개할게요.

+ [아르떼 웹진 365](#)

+ [문화예술 교육사 블로그](#) [blog.naver.com/aci2013](http://blog.naver.com/aci2013)

+ 예술경영 대학원생이 등록금 아까워서 만든 페이지

덤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신형철 산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보고,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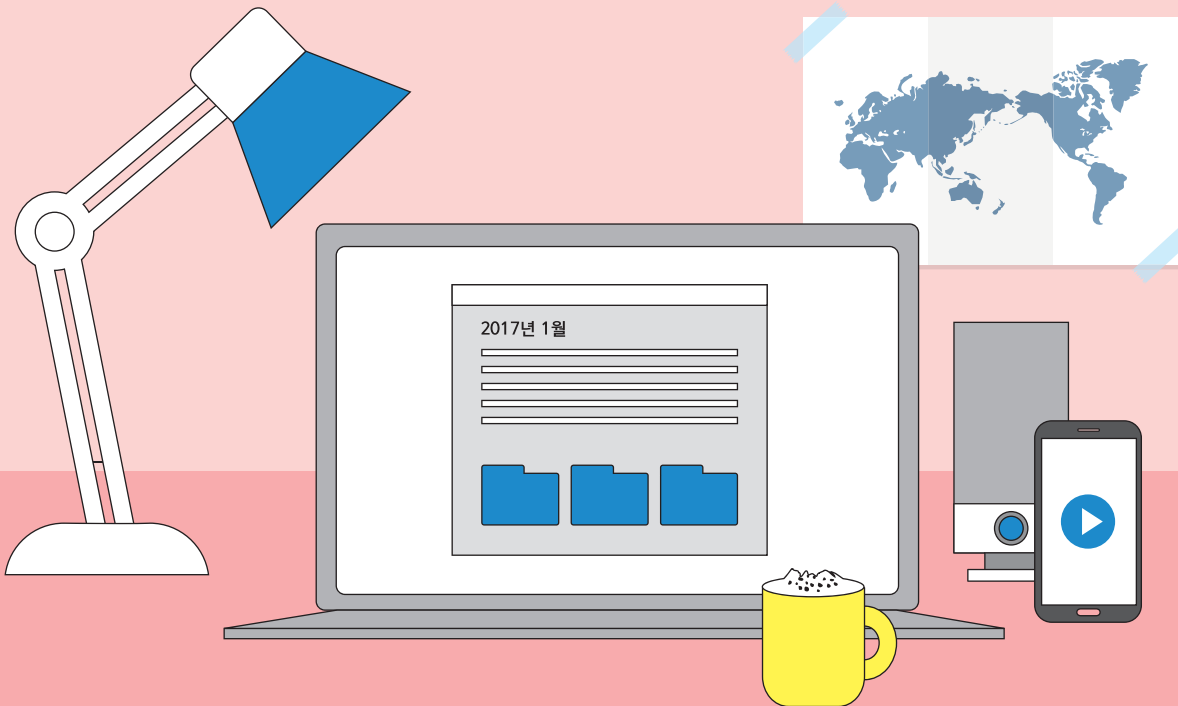
## 박상준

### #책상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글남'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글이 잘 써질 수 있도록 돕는 아이템들

- + **스탠드** 글을 쓸 때 조금 무드있게 켜놓으면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 + **뉴에이지** 음악 가사 있는 음악도 좋지만, 선율만 있는 음악은 글의 연결장치로 작동해요.
- + **카페라테**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카페라테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곤 합니다.
- + **노트북** 노트와 펜보다는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북이 좋아요
- + **사진첩** 글을 쓰다가 막힐 때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서 회상하면 그때의 감각이 다시금 떠오르곤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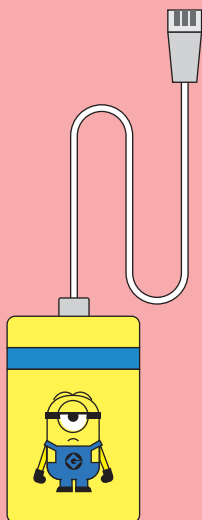
Enjoyable · 즐길 수 있는 ——— 인세Insider들의 인사이트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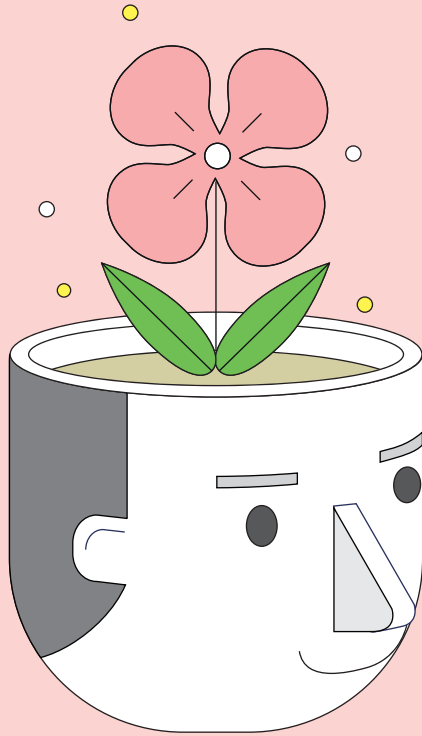
## 선단비

### #미니언즈 외장하드

내 방이 따로 있듯 컴퓨터 속 세상에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는 나의 미니언즈 외장하드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까?

- + **사진** 어느 곳이든 누비고자 하는 포부는 강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뇌 용량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허나 새로운 만남은 멈출 수 없기에 추억은 잠시 하드용량에 채우기로 한다.
- + **영화** 흔히 감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만 그마저도 부족할 때 나만의 취향으로 구성된 영화 리스트들을 클릭한다.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 감성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지니까! 그 중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나와 모담지기를 이어 준 오작교 같은 존재였다.
- + **디자인** 이 폴더가 없는 디자이너가 과연 존재할까? 세상의 예쁜 디자인들을 모조리 수집하고 싶은 욕구는 예술의 길을 걸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글에 대한 영감이 부족하다면 예쁜 디자인들을 구경하며 마음을 달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임우정

### #철학적 생각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바탕에 나만의 생각, 철학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편안한 글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류빈

### #프로필

글을 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내가 밟아온 자취들을 적어보는 것이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프로필은 글을 쓰는 동기가 돼요.

- + 전남대학교 생물공학과
- + 전남대학교 문예지 <글아치>
- + 시집 <장미 氏,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
- + '스토리에이블' 블로그. 전남대 학생이라면 공모를 통해 누구나 투고할 수 있고 상금도 지급한다.
-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문 모담지기
- + 최우명 :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곽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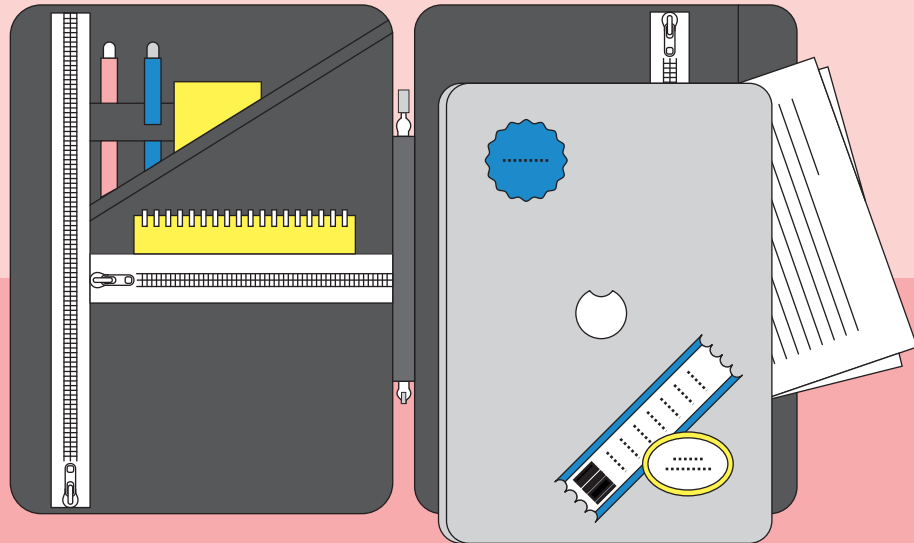
## #노트북 케이스

취재 후 기사를 작성하려면 노트북은 필수! 개인별 성향과 노트북 크기에 따라서, 노트북 케이스도 다양각색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노트북 케이스와 함께 저의 취재 노하우까지 공개합니다.

###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블랙 케이스 280\*220\*25(mm)

노트북은 무엇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케이스도 가볍게. 위에 달린 손잡이를 이용해 서류가방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가볍고 작은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한번쯤 눈여겨볼만 하다.

노트북 케이스의 바닥을 열면, 비밀공간이 툭 튀어나온다. 이곳에는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다. 취재할 때는 어떤 것들을 들고 가야할까? 일 년간 현장을 취재를 다니며 얻은 작은 팁을 전수해본다.



**+ 볼펜** 취재 현장에서 볼펜은 필수품. 들고만 다녀도 취재를 하고 있다는

포스를 풀풀 풍길 수 있다. 무언가 한쪽 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볼펜을 꽉 쥐어보자.

**+ 취재수첩** 나는 아직 아날로그 방식이 더 편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현장을 보고 느낀 점, 그날 주요하게 있었던 일, 인상 깊었던 지점, 활동 내용 등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야한다. 그저 자신의 기억력만 믿는다면, 기사를 쓸 때 머리가 백지장처럼 변해버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생동감 있는 기사를 완성해보자.

**+ 포스트잇** 정신이 없다면 취재 수첩을 막 펼쳐 적고 있을 때가 있다. 이럴 때 포스트잇으로 페이지를 표시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첩을 뒤져야만 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체크하는 습관은 필수.

**+ 취재현장 정보** 취재할 곳이 정해졌다면, 사전에 취재처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가자. 돌발 상황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정보와 현장 내용을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다.

# 굿바이 모담지기

## 최류빈 모담지기

연초부터 분주하게 광주 방방곡곡을 누벼왔던 ‘모담지기’ 활동이 어느덧 끝을 마주하고 있다. 통신원으로 문화예술현장과 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일반 시민에게는 예향을 파종하며 꽃을 틔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리라. 그중 세 명의 통신원과 좌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으로 일 년 남짓 취재에 임한 저마다의 소회를 짧게나마 들어보았다.

**Q** 먼저 긴 시간동안 통신원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모담지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A** **곽주영 모담지기**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씩 시간을 내어 수업에 참여하시고, 연극을 준비하시던 중년 어머님들, 주말마다 마을을 탐험하던 작은 아이들, 어딘가에서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 삶에도 절로 에너지가 솟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모담지기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관찰하고 취재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들 이외에 더 큰 배움을 준 것 같습니다.

**A** **박상준 모담지기** 광주에도 수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술의 장르와 취향, 개인의 특성과 기호가 아무리 이채롭더라도 이를 충족시킬

‘문화적 수용력’이 광주라는 도시 자체에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어떤 기획활동이나 그렇듯,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깊게 홍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주소입니다. 우리 통신원은 이 간극을 좁히고 문화예술교육의 예향을 더 넓게 퍼뜨리는 매개자의 역할을 맡았다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으며 눈이 빛나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해맑은 미소로 유년처럼 춤추던 어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담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A** **선단비 모담지기** 통신원 활동으로 인해 누구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작은 생각은 ‘문화예술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 세상은 점점 차갑고 치열한 경쟁사회의 복판을 지나가는 우리는 성하(盛夏)에서도 한없이 척박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 퇴색된 삶을 빛으로 채색하는 유일한 희망은 문화예술 교육이라라 생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뜨겁고도 현현하게 느껴지는 열정의 순간들은 이런 믿음에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모든 교육생과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열렬히 임하던 프로그램들을 보며 그래도, 이 지역 광주가 예술의 빛으로 물들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때론 완벽하지 않아도 살가운 관심으로 머리를 모으던 모든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광주를 약속하는 하나의 현장이었습니다.

**Q** 어떤 프로그램이든 완벽할 순 없겠지요. 모담지기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부분이나 내년에 보완할 점은 어떤 것들이라 생각하는지?

**A** **곽주영 모담지기** 모담지기 간에 네트워크가 더 끈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취재 팁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명이 함께 나가 취재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행사를 이런 관점에서만 취재했는데, 다른 분이였다면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시각, 관점에서 함께 취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획 기사의 이름은 Two in one?...뭐, 이런 느낌? 으로 ... 죄송해요(웃음) 방금 막 생각한 이름이라. 하하...

**A** **박상준 모담지기** 모담지기라는 네이밍이 정감가고 다정하지만 너무 귀여운 느낌이어서(웃음) 기관 등에





곽주영 모담지기와 인터뷰 진행

취재 협조를 구할 때 ‘모담지기’입니다 하고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관의 권위를 빌릴 수 있도록 무게감 있으면서도 ‘문화예술교육 통신원’이라는 상징은 담는 더 멋진 이름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회의를 통해 다음 년도 통신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여럿 공유하기도 했어요. 반영이 되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등장해 멋진 이름을 갖는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Q** 선단비 모담지기 영상 촬영을 전담하는 모담지기가 프로그램 운영 사정상 무산이 되었던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사진과 글이라는 평면적 플랫폼 이외에도 차세대 플랫폼의 방점인 ‘영상’ 매체가 적절하게 병존했다면 모담지기의 활동 효율이 더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체 간 시너지와 융합이 이루어져 단순히 생산해 내는 이상의 효과를 차년도에는 거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 다소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기자단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머지않아 모담지기 활동을 종료하고 수료하게 되면, 이제 어엿한 선배 통신원입니다. 내년도 모담지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 곽주영 모담지기 처음엔 담당 기획자에게 일정을 확인하고, 낯선 곳에 불청객처럼 끼어들어 취재한다는 것이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취재 건수가 늘어날수록 자신만의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낯선 곳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 광주문화재단 통신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원래 참여하던 사람인 마냥 이것저것 탐색하고 즐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A** 박상준 모담지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원고까지 쓰게 될 여러분! 활동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면 다분야의 능력치가 알게 모르게 올라있는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적절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며 원고를 윤문하고, 교정, 교열하며 배치하는 일련의 작업까지. 그리고 종국에는 이러한 작업물이 출판물로까지 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게 경험하는 일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좋은 경험입니다. 작은 응원을 드립니다.

**A** 선단비 모담지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 활동은 단순히 취재 이상의 무엇을 표상합니다. 우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목표와 포부를 가진 멋진 동료들이 한 철 모담지기라는 이름을 살 겁니다. 그들과의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은 기사 몇 줄을 쓰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서로 축적되어가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이 멋진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또 새롭게 시작점에 설 여러분의 멋진 마침표를 기다립니다.

**Q** 끝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A** 곽주영 모담지기 9기 모담지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움 주셨던 광주문화재단 김한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하고 싶다.

**A** 박상준 모담지기 친구 류빈이와 같이 통신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중간중간에 취재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신 센터 일동과 김한경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

**A** 선단비 모담지기 안 갈 것 같은 시간이 훌쩍 멀어져 있네요. 결과적으로 멋진 경험을 선물해 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김한경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멋진 활자로 또 만나요!

## 통신원 소감



곽주영

2018년,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꿈꾸었던 한해. 처음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문화예술교육행사나 프로그램 현장을 보고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하니, 별거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모든 현장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문화예술이 배부른 이야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말 가까워서 현장들을 지켜본다면,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혼에도 물을 주어야만 한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면,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 메마른 영혼은 열정과 꿈을 바닥나게 하고, 삶을 시들어가게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힘은 여기에 있다.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 삶을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 현장에서 만난 기획자, 강사, 참여자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취재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 되었다. 자칫 내가 쓰는 글이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잘못 전달하면 어쩌나하는 생각. 내가 든 펜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야기 하나하나를 모두 담아내고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쉽지만, 현장을 누비며 스스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그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하며, 문화예술의 단비가 더 넓은 곳에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마민주

“connect the dots”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올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제게 친구는 스티브 잡스의 “connect the dots” 라는 말을 적용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점을 찍어둔다면(아마추어를 벗어난다면), 그 점들이 나중에 연결되어 내 미래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모담지기로 저는 제 인생에 점 하나를 더 찍게 되었습니다. 통신원 활동을 통해 저는 수많은 직업군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1년간의 취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었을 때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현대 문명사회의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이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제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박상준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직접 발로 돌아다니며 현장의 기사를 담아내면서 1년이 지났어요. 초보부터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덜덜 떠는 게 추워서인지, 취재현장에 나가는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는 채로 시작했지만, 몇 개월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담당자님과 연락을 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걸 보고 저 스스로 신기하기도 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접할 때 난감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검색하면서 글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에 내 원고가 포함된 기사가 매월 발행될 때 그 뿌듯함은 금세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곤 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지만 이 활동에 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집적하고 오프라인을 온라인과 연결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취재 활동에 도움을 준 단체 담당자님들과 통신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한경 선생님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선단비

모담지기로서의 ‘선단비’는 항상 긴장했다. 익숙해질 때도 되었던만 새로이 취재를 나서면 무조건 심장부터 뛰기 시작했다. 취재 전 연락을 드릴 땐 무조건 대본을 만들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었고 현장에 도착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어느 새 두 번째 겨울이 왔다. 통신원으로서 난 얼마나 성장했을까? 사실 잘 가늠되진 않지만 적어도 내 글에게 좀 더 떳떳해졌단 건 스스로도 느껴진다. 덕분에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른 채 시작한 취재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특히, 우리 엄마 세대의 어머니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엄마의 삶이 무엇인 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아직 우리 삶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모담지기 9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다. 아쉽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고개 돌려보게 된다. 나의 스물셋 청춘과 함께 흘려보내야 하지만 통신원의 선단비를 기억하기에 나의 긴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협조해주신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우정

올해 초 나름 야심차게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신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읽을 글을 쓰는 작업.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일면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전문 기자가 아니니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본 대로 쓰면 되겠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분들과 처음 보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후반부로 갈수록 개인일정들이 바빠지면서 통신원 활동에 몰두 할 수 없어졌고 그렇게 취재도 두어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번 통신원 활동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 외에 다른 멋진 통신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좋은 글을 써주셨고, 내년에도 더욱 멋진 통신원들의 글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서 계속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신원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최류빈

아, 길었다. 연초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취재처를 오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피부에 담아왔다. 재밌었다. 초록이 성하의 복판을 건너던 계절에는 취재를 가서 잔디밭에 잠깐 누워보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은 경직되지 않고 심의 여유가 있던 곳, 이제 밝은 눈을 기다린다. 다시 취재를 나가 눈발에 도장을 찍고 싶은 마음. 또 보자! 모담지기, 부르다 보면 정감 가는 이름이지 싶다. 아쉽지는 않다. 열심히 활동했으니 오히려 뿌듯한 마음! 멋진 기사들이 잔뜩 남았다. 누웠던 곳을 돌이켜 보니 마음에도 풀이 자란다.

## 2018 뉴스레터 주제목록

### 70호 묻다; 당신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칼럼	지역은 컨텐츠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경(퍼포먼스 반지하)
통신원	문화예술교육의 전령, 9기 모담지기 위촉식 현장을 Zoom-in하다	최류빈
통신원	지역민과 예술인의 매개체가 되다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윤혜진
통신원	요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탄생한다   야호센터	마민주
통신원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가다	임우정
통신원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교 '2018 창의예술학교'	박상준
통신원	지난해 지역특성화 우수평가 단체를 들여다보다   엄마꽃마을예술학교	곽주영
통신원	왕(王)이 사랑한 보물, 손으로 그려보다   국립광주박물관	선단비

### 71호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나를 찾다

전문가 칼럼	무명씨의 삶이 예술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고찰	전경화(문화집단 열혈지구)
통신원	'나'를 아시나요? 나에게 대한 해답, Re플레이광주   은암미술관	윤혜진
통신원	함께 크는 나무협동조합의 자화상	최류빈
통신원	아줌마 본색(本色), 진짜 나로 돌아보기   문화집단 열혈지구	곽주영
통신원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는 즐거움, 공감을 배우는 학교 '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	박상준
통신원	광주의 정신이 깃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극 축제	임우정
통신원	문화예술 속의 축제, 축제 속의 나   온앤오프 무용단	마민주
통신원	또 다른 '나'를 배우는 시간-커리어러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소년 직업체험	선단비

### 72호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전문가 칼럼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김자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통신원	오래된 것들   월산동 달피마을 '순돌이네 작은책방'에서 만난 할매들	임우정
통신원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은 완성된다   놀이터 아름	선단비
통신원	훈이오빠와 함께하는 빛고을 숨은 이야기 찾기 여행   동명동 카페골목	윤혜진
통신원	사진을 통해 '나'를 보는 즐거움 '도시숲 문화연구소'	박상준
통신원	내 손에서 탄생한 예술, 내 손에 탄생한 예술	마민주
통신원	다함께 웃놀이 한판   열공협동조합	곽주영
통신원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   인큐베이팅 선정단체	최류빈
정리	삶의 주인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강연·채성태, 정리·김한경

### 73호 치유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칼럼	문화예술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	이미경(광주트라우마센터 음악치료 전문가)
통신원	내 마음 속 색깔을 찾아서 '오색빛깔 마음여행'   주안미술관	곽주영
통신원	이밥의 꽃, 오월의 어머니를 감싸 안다   아트플랫폼 오르세	선단비
통신원	청소년의 쉼터, 내가 만드는 이야기   극단 토박이	박상준
통신원	바느질 하며 먹고, 배우고, 사랑하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어린엄마들   어디디야	임우정
통신원	예술의 표현을 통해 건강찾기   행복나눔 연구소	박상준
정리	2018 창의예술학교 네트워크 포럼 "동네예술학교가 필요한 이유"	강연·창의예술학교 운영단체 정리·마민주 통신원
	트라우마 극복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메이데이(may day)   광주트라우마센터	최류빈



## 74호 사과를 새롭게 보는 방법

전문가 칼럼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행 ‘모두를 위한 북큐레이션’	김순정(책문화공간봄 문화예술기획팀장)
통신원	경자씨의 재봉틀은 멈추지 않는다	선단비
통신원	교육과 문화예술의 링크, 작은 무도회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최류빈
통신원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선, 새로운 지도	곽주영
통신원	다각적 시각의 표출, 다양한 감성의 자극 버려진 물건들의 예술적 승화 ‘내가 그린 세상’	박상준
통신원	매일 매일이 모여서 만든 동네방네 여행일기 ‘우리동네 신문사’   놀이요점빵과 함께 하는 서창마을	마민주
통신원	오랜만의 편지 공동예술의 거리 ‘청년문화하브’에서 만난 어린 어른들	임우정

## 75호 놀면서 배우장(場)!

전문가 칼럼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김혜일(문화공동체)
통신원	오늘 우린 경자씨를 마칩니다   경자씨와 재봉틀V 졸업식	선단비
통신원	라디오 덕분에 어르신나지요?   광주시민방송	마민주
통신원	우리가 만든 뮤지컬 좀 봐보실까요?	마민주
통신원	동신으로 두드리는 못, 어린이들의 비밀 아지트 ‘어린이 목수축제’	최류빈
통신원	똑딱똑딱 어린이 목수 탐방기	곽주영

## 76호 일상에서 예술을 건지다

전문가 칼럼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관장)
통신원	그녀들의 희노애락, 인생 제2막을 열다   마음놀이터	선단비
통신원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바림	박상준
통신원	똑딱똑딱 만드는 재즈 선율 목공과 음악으로 꾸미는 시간   시소학교	임우정
통신원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예기치못한기쁨	마민주
통신원	몸-마음, 일상-예술, 너-나 ‘연결고리’	곽주영
통신원	산창동의 자랑, 즐거운 인형극 한마당   원시인마을극단	곽주영
통신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 그냥 즐기세요!	마민주

## 77호 축제하는 인간

칼럼	축제의 원형성과 현대 축제의 과제	윤성진(축제기획자)
통신원	2018 문화예술교육축제-남녀노소 나·나·노	곽주영
통신원	몸짓으로 전하는 수화 춤   하카와하네 광주홀라걸	박상준
통신원	문화예술교육다운 문화예술교육을 향하여	선단비
통신원	무등 色을 노래하는 거대한 울림 ‘2018 무등울림 축제’	최류빈
통신원	문화예술축제, 문화산업에 날개를 달다!	마민주

## 78호 머뭇거리며 돌아가는 달

칼럼	광주다움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통신원	창의예술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2018 창의예술학교 졸업식	박상준
통신원	크리에이터들의 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베이스튜디오의 불빛	임우정
통신원	7년의 여정, 더욱 창의적인 학교를 맞이하며	선단비
통신원	가족 소통의 처방전, 문화예술교육!   광주시티문화예술단	마민주
통신원	아시아 문학을 탐색하다   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곽주영
통신원	Good bye, 모담지기	최류빈

# 달다

154

155

맺음말

#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꿈꾸다



정혜영  
문화예술교육팀장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 주기를 바라며 찬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픈 허리도 잊으신 채 팔죽을 쑤어 걱정 한보따리 마음 한구석에 이고 졸업식장으로 오셨단다.

“요즘 애기들이 팔죽을 먹을라나?” 맛없어 할까봐서 정성껏 쑤 팔죽이 푸대접을 받거나  
않을까 걱정과 부담이 되셨던가보다.

팔죽 한통은 다 비워졌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맛있게 먹었다. 같이 먹었던 치킨에 밀리지도  
않았던 셈이다.

“남으면 내가 뒤 집어 쓸라고 했지”라며 빈 통을 보시며 즐겁게 웃으셨단다.

달할매학교 할머니학생들의 창의예술학교 졸업식 뒷이야기이다.

- 창의예술학교 에피소드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바라는 문화예술교육은 세대를 아우르고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누구나 즐기는 그래서 삶이 행복해 지는 매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공간인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터를 설립하고 생활권역별 거점 예술배움터와 동네와 마을마다 작은  
예술배움터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소통을 확장하고  
공간과 예술을 확장하는 현장형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 해 동안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 울림

**발행처**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김윤기

**발행일** 2018년 12월

**기획**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혜영, 김연경, 김유정, 김세령, 김원, 김한경, 심현지, 이성환

**구성** 정혜영, 김연경, 김세령, 김한경

**주소** (61636)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12번지)

**전화** 062-670-5763

**팩스** 062-670-5769

**이메일** gjarte@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gjarte.or.kr>

**디자인** 디자인창작소 사월

**인쇄** 대신인쇄

Copyright2018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본 책은 2018년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